

2017 가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농산업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과 과제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7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박동규 dgpark@krei.re.kr, 노수정 nosu303@krei.re.kr, 이연옥 superiorl@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283 팩스: 061-820-2409

목 차

I .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4
3. 소비	5
4. 물가	7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2
4. 농축산물 수출입	23

III .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9
2. 엽근채소	34
3. 양념채소	39
4. 과일	48
5. 과채	54
6. 축산	60

Ⅳ. 주요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음식점 소비 조사	67
2. 대량수요처 조사	79

특별주제

농산업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과 과제	91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105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하였고, 이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정부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증가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함.
- 2017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6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서비스업은 공공행정·도소매업 고용 개선 등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제조업의 증가세 지속, 건설업의 고용 증가폭 확대 등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 2017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소비심리조정 등은 향후 소비판매에 부정적 요인이나, 승용차 내수판매 및 백화점, 차량연료 판매 호조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17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함. 채소류 가격 안정,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함.
- 2017년 9월 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증가,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국내경기지표 호조 등으로 큰 폭 상승함.
- 2017년 3/4분기 원/달러환율,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7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의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 등 리스크가 상존함.

II. 농촌경제 동향

- 2017년 3/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6.5% 감소하였고, 이는 채소류와 육우 등의 축산물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 전분기 대비 5.0% 하락함.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였고, 이는 곡물류 중 비중이 가장 큰 미곡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임. 채소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전분기보다 11.9% 상승함.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배, 복숭아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6.9% 상승함. 축산물은 돼지와 오리, 계란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함.
- 2017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6%, 전분기 대비 0.2%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하며, 이는 종자, 비료, 농약 등의 농업용품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기구와 영농광열비는 상승하였기 때문임. 농촌임료금지수는 농업노동임금과 농기계 임차료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함.
- 2017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5.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의 상승폭이 농가구입가격의 상승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농가교역 조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남성 취업자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7%, 전분기 대비 0.4% 증가함.
- 2017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2.7% 증가함.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모든 부류에서 순수입액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9.0% 증가함.
 - 수출의 경우, 축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데 반해, 곡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액이 10.7% 증가함. 수입의 경우에는 농산물이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하였고, 축산물과 임산물과 각각 16.9%, 20.6%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과 과제

- 농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어느 산업보다 높음.
 - 농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높음. 농산업 분야의 경제 규모는 총산출액 기준 320조 원(전체 산업 대비 8.9%)이고, 고용 규모는 취업자수 기준 396만 명(전체 산업 대비 17.1%)임(한국은행 2016). 취업계수(산출액 10억 원당 취업자수)가 12.4명으로 전체 산업평균(6.4명)의 2배에 이름.
 - 향후 농산업 분야의 종사자 전망 및 현재 종사자의 은퇴 등을 고려할 때, 2023년까지(2013년 대비) 116만 명 정도가 더 투입될 필요가 있음. 농업 생산 부문 61만 명, 외식 부문 34만 명, 농림식품 가공 부문 9.8만 명, 농림 서비스 부문 2.9만 명, 농림 투입재 부문 5천 명, 농림 유통 부문 8만 명 규모로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청년 세대(농업계 학생 및 일반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 농업계 학생, 일반계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향후 진로 계획을 조사한 결과, 농고생의 42.2%, 농대생의 73.8%, 일반계 대학생의 30.4%가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이 있었음.
 - 이들의 농산업 분야 취·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정보,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의 부족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음.
- 농산업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농산업체와 학교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 개선 차원에서 임금 지원과 복지체계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세부 농산업 부문별 기구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함. 필요한 경우 기본 소득제를 농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청년 세대에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관한 정책을 정교화 해야 함. 학교 교육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 마련이 시급함. 무엇보다 농산업 노동시장과 농업계 학교의 산학연계를 활성화 시켜야 함.
 -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농산업 고용 전담과를 신설하고, 관련 통계와 일자리 정보 체계를 정비해야하며, 지역별 농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와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고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함.

2.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 2017년 7월부터 쌀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시장격리 계획발표 등 다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쌀 수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쌀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10년(2007~2016양곡연도)간 작황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고 초과 공급물량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약 28만 톤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 공급과잉 기조는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4년산 이후 시장격리를 계속 실시하여 2017 양곡연도 말 정부재고는 182만 톤 수준까지 증가하여 적정 재고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부양곡 10만 톤 당 관리비용은 직·간접 비용을 모두 고려할 시 약 307억 원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시장격리와 같은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함.
- 생산조정제 도입시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작보상형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 전작 작물의 급격한 공급 증가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풋거름(녹비) 작물 재배 시 지력 증진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의 휴경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국내에서 쌀 생산감축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 및 재고 감축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전작되는 작물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음.
- 지원단가는 쌀 소득과의 소득격차, 논 평균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타작물로의 전작을 유인하되, 일률적인 단가 방식이 아닌 차등단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정작물로의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생산조정제는 초과 공급 상태인 쌀 수급 상황을 개선시켜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시점까지로 시행 기간을 한정하되, 정부는 후속 대책을 통해 타작물로 전작한 농가들이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타작물 재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타작물로의 전작 촉진과 회귀방지를 위해 참여농가가 장기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작작물 육성을 위한 전작보상제 등과 같은 후속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1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이며, 정부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전기 대비 확대되었고, 수출은 증가로 전환됨.
 - 2017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4%로, 2/4분기(2.7%)보다 증가폭이 감소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건설투자,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전기가스, 주류 등)와 서비스(의료 등) 소비가 늘어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2.4% 증가함.
 - 2017년 3/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이 증가하여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7.5% 증가함.
 - 설비투자는 산업용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16.8%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늘어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5.0% 증가함.
 - 수입은 화학제품, 원유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8.4%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연옥 연구원(superiorl@krei.re.kr),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7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17.10.26.)」, 「2017~18년 경제전망(2017.10.19.)」,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17.10.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5	2016 ^p					2017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 D P 성장률	0.8	0.6	0.5	0.9	0.5	0.5	1.1	0.6	1.4(3.6)
민간소비	0.9	0.4	-0.1	0.8	0.6	0.2	0.4	0.9	0.7(2.4)
정부소비	0.8	0.9	1.4	0.6	0.9	0.6	0.5	1.1	2.3(4.6)
건설투자	2.6	2.9	7.6	3.1	2.2	-1.2	6.8	1.0	1.5(7.5)
설비투자	0.8	0.6	-7.0	2.6	0.9	5.9	4.4	5.1	0.5(16.8)
총 수 출	0.4	0.3	-0.6	1.0	1.0	-0.1	2.1	-3.0	6.1(5.0)
총 수 입	1.2	0.8	-1.5	2.2	2.6	-0.1	4.8	-1.0	4.5(8.4)

주 1. 2016^p, 2017^p 자료는 잠정치임.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건설업이 증가세로 전환함.
 - 제조업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2.7% 증가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0.9% 성장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5	2016 ^p					2017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농림어업	0.3	-1.1	3.7	-4.5	-1.9	-1.8	5.9	-1.1	-6.5(-3.7)
제조업	0.5	0.7	0.4	1.0	-0.4	1.8	2.1	-0.3	2.7(6.4)
서비스업	0.8	0.4	0.4	0.5	0.6	0.2	0.2	0.8	0.9(2.2)
(도소매 및 음식숙박)	0.4	0.4	-0.2	0.7	0.5	0.7	-1.1	0.4	0.8(0.7)
(금융 및 보험업)	1.7	0.6	0.4	0.3	0.7	0.9	0.3	2.2	0.2(1.4)
(부동산 및 임대)	0.8	-0.1	1.2	-0.6	0.1	-0.9	2.3	-0.6	0.7(1.4)
(보건 및 사회복지)	1.9	1.9	0.6	1.0	4.1	1.9	-0.5	2.3	5.3(9.2)

주 1. 2016^p, 2017^p 자료는 잠정치임.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17년 중 경제성장률(GDP)은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금년 중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상품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확대됨에 따라 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18년에는 금년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 3/4분기에는 소매판매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국외소비도 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함.
 - * 10월 초 장기연휴와 동계올림픽 개최 등도 소비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그러나 이자지급부담 증가, 실질구매력 개선 미흡 등은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북한 리스크 확대 등 향후 불안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이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는 금년 중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으나 IT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IT부문은 금년 중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겠으나 글로벌 업황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비IT부문의 경우 철강 및 조선은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화학, 자동차, 통신 등은 신기술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전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은 2016년 이후 착공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토목 또한 현재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이 예상됨.

- 상품수출은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며, 서비스수출은 금년 중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2016	2017 ^{e)}			2018 ^{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8	2.8	3.2	3.0	2.9	3.0	2.9
민간소비	2.5	2.1	2.5	2.3	2.7	2.6	2.6
설비투자	-2.3	15.9	12.1	14.0	2.3	3.4	2.8
건설투자	10.7	9.4	4.9	6.9	0.3	0.1	0.2
상품수출	2.2	4.2	3.3	3.7	2.4	4.6	3.5
상품수입	3.6	9.3	5.0	7.1	2.1	4.8	3.4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7.10.19. 발표한 「2017~18년 경제전망」 자료를 참고함.

2. 2017^{e)}, 2018^{e)}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17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6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각각 2.3%, 0.3% 증가함.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과 추경집행·추석효과 등에 따른 공공행정·도소매업 고용 개선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 제조업은 수출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조정 영향 지속 등으로 증가폭이 미약하며, 건설업은 기상여건 개선, 아파트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임시직은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은 증가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증가하였고 무급가족 봉사자는 감소세가 소폭 확대되었음.

3) 고용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7.9월 고용동향(2017.10.18.)」, 통계청 보도자료 「2017년 9월 고용동향(2017.10.18.)」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9월 기준 고용률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 감소하였으나, 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률은 0.1% 상승하였음.
- 2017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2015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6,913	26,708	27,415	27,539	27,327	27,247	27,082	27,836	27,799	2.3
(경제활동참가율)	62.6	61.7	63.2	63.4	62.8	62.8	62.1	63.7	63.5	-
취업자	25,936	25,554	26,387	26,554	26,446	26,235	25,915	26,754	26,833	2.3
• 농림어업	1,345	1,038	1,419	1,413	1,276	1,286	1,013	1,423	1,437	-3.8
• 광공업	4,500	4,561	4,522	4,458	4,460	4,500	4,453	4,502	4,494	-0.7
(제조업)	4,486	4,544	4,503	4,439	4,439	4,481	4,432	4,480	4,470	-0.9
• 건설업	1,823	1,748	1,829	1,882	1,921	1,845	1,880	1,986	1,963	6.5
• 도소매·음식숙박업	5,962	5,929	5,968	6,084	6,043	6,006	6,058	6,024	6,083	1.7
실업자	976	1,153	1,028	985	881	1,012	1,167	1,082	966	4.0
실업률(계절조정)	-	3.8	3.7	3.8	3.6	-	3.8	3.8	3.7	2.8

자료: 통계청

3. 소비⁴⁾

- 2017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2.3% 증가함.
- 2017년 8월 소매판매 중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가전제품·통신기기 등 내구재(-2.7%) 및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감소하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감소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7.10.13.)」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소비심리 조정 등은 향후 소매판매에 부정적 요인이나, 승용차 내수판매 및 백화점·차량연료 판매 호조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동향

단위: %

	2015	2016					2017 ^p			
	연간	연간 ^p	1/4	2/4	3/4	4/4	1/4 ^p	2/4 ^p	7월 ^p	8월 ^p
민 간 소 비	2.2	0.9	0.9	0.3	1.3	1.5	0.4	1.0	-	-
소 매 판 매	-	-	0.2	2.0	1.2	2.1	0.5	1.2	0.1	-1.0
(내 구 재) ¹	10.0	4.5	4.0	5.1	5.8	5.6	0.3	5.3	1.5	-2.7
(준내구재) ²	1.1	2.5	0.9	1.1	0.1	0.0	1.3	0.9	0.2	0.3
(비내구재) ³	3.1	4.7	2.5	0.6	1.1	1.0	0.3	0.3	0.6	-0.5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6~2017년 민간소비 및 2017년 7월^p, 8월^p은 전망치임.

5.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7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4만 6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재산소득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전분기 대비 각각 12.9%, 4.1%, 0.5% 증가하였으며, 이전소득은 전분기 대비 1.6% 감소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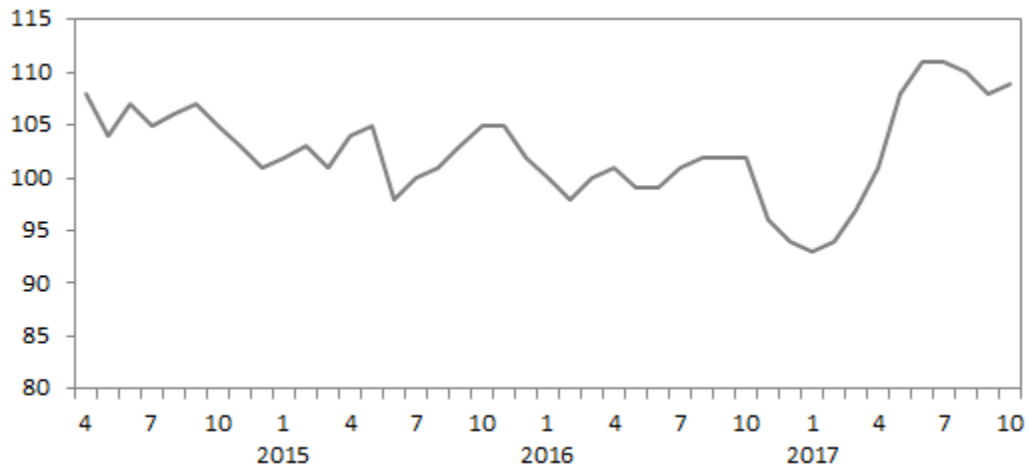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소 득	1.6	2.6	2.9	0.7	0.9	0.6	0.8	0.8	0.7	0.2	0.8	0.9
경상소득	1.6	2.8	2.1	0.8	1.1	1.1	0.8	1.7	1.4	1.0	0.8	1.1
(근로소득)	1.6	3.8	1.7	0.1	0.9	1.0	0.3	1.9	1.9	0.4	0.0	0.5
(사업소득)	-1.9	-4.6	-2.1	-1.6	0.4	1.5	3.3	0.2	1.1	2.2	0.9	4.1
(재산소득)	0.1	17.9	-6.3	7.8	-18.2	-18.4	-21.0	-9.8	-31.9	-4.4	15.2	12.9
(이전소득)	9.4	10.4	15.2	11.5	4.7	2.1	0.7	3.8	0.4	2.9	5.3	-1.6
비경상소득	1.6	-2.1	25.9	-4.7	-4.8	-14.5	2.3	-21.4	-23.4	-23.9	1.7	-4.0

주: 소비지출자료는 2017년 1/4분기 자료부터 연간 공표로 변경되어 분기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 2017년 10월 소비심리지수⁵⁾는 109로 전년 동월(102) 대비 6.9% 증가하고, 전월(108)과 비슷함.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물가⁶⁾

- 2017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함.
 - 10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가격 안정 및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함.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2017.11.1.)」, 통계청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2017.11.1.)」, 한국은행 「2017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2017.10.23.)」, 「2017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2017.10.18.)」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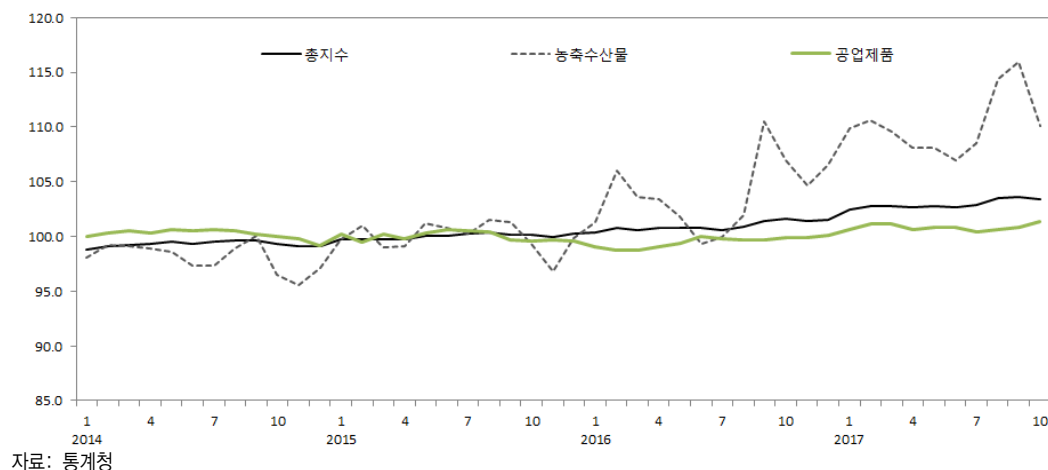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1.0 (1.0)	100.6 (0.9)	100.8 (0.8)	101.0 (0.7)	101.5 (1.5)	102.7 (2.1)	102.7 (1.9)	103.3 (2.3)
상 품	99.4 (-0.6)	99.4 (-1.0)	99.2 (-1.0)	98.9 (-1.1)	100.2 (0.7)	101.4 (2.0)	100.9 (1.8)	101.8 (2.9)
농축수산물	103.8 (3.8)	103.7 (3.7)	101.5 (1.1)	104.2 (3.1)	106.0 (7.5)	110.0 (6.1)	107.7 (6.1)	112.9 (8.4)
공업 제품	99.5 (-0.5)	98.9 (-1.1)	99.5 (-0.7)	99.7 (-0.5)	100.0 (0.4)	101.0 (2.1)	100.8 (1.3)	100.6 (0.9)
전기·수도·가스	90.8 (-9.2)	95.7 (-8.2)	92.4 (-7.0)	83.7 (-13.0)	91.4 (-8.7)	89.1 (-6.9)	90.3 (-2.4)	90.4 (8.0)
서 비 스	102.3 (2.3)	101.6 (2.4)	102.1 (2.4)	102.7 (2.2)	102.7 (2.1)	103.7 (2.1)	104.2 (2.0)	104.6 (1.9)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상품과 서비스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9%, 1.9% 상승함.
 - 10월 농축수산물은 수산물의 가격 강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채소류·축산물 가격안정 등으로 상승세가 축소되었음. 석유류는 OPEC 감산 연장 논의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됨.
- 10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에 비해 교통, 오락·문화, 주택·수도·전기·연료, 음식·숙박,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기타상품·서비스는 상승하였고, 의류·신발, 통신, 교육은 변동 없으며 주류·담배, 보건, 식료품·비주류음료는 하락하였음.
 -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교통,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12개 부문 모두 상승함.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 2017년 3/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로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4.9% 상승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였고, 채소는 전분기 대비 24.9% 증가하였으며 곡물 및 기타농산물은 각각 2.1%, 2.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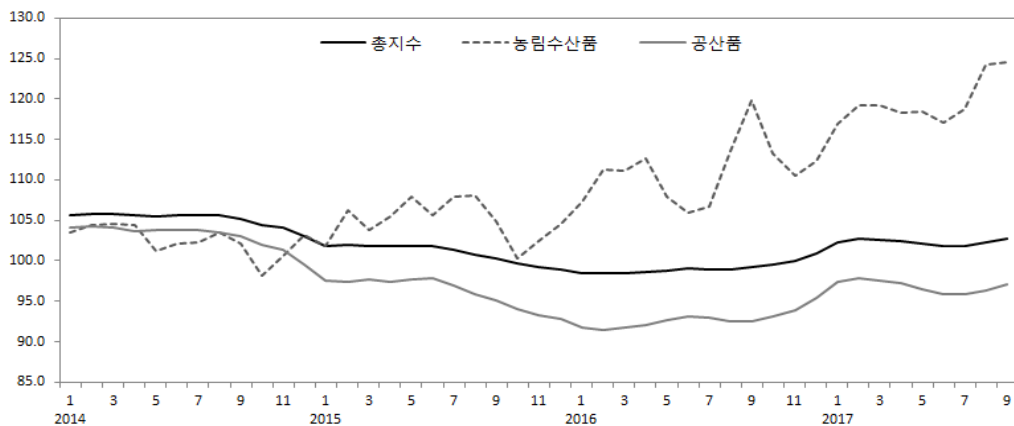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2016					2017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3.8	103.7	101.5	104.2	106.0	110.0	107.7	112.9	-3.6	4.9
농산물	103.8	105.7	100.4	103.3	105.9	110.6	104.1	113.7	1.5	9.3
곡물	91.7	95.7	92.7	90.9	87.7	86.3	85.4	87.2	-19.9	2.1
채소	116.9	119.0	107.0	118.0	123.7	126.4	102.1	127.5	13.0	24.9
과실	98.4	98.7	98.5	96.6	99.6	109.8	116.8	116.9	12.2	0.0
기타농산물	99.0	102.2	98.1	97.4	98.2	100.2	96.7	99.0	-27.9	2.4
축산물	104.4	101.1	102.9	106.6	106.9	109.9	112.8	113.8	7.2	0.9
수산물	102.9	101.7	102.7	102.3	104.8	108.3	110.4	108.3	-10.7	1.8

자료: 통계청

- 생산자물가지수는 2016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함.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출하 및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산물은 전년 9월 대비 28.1% 상승함.
- 공산품은 제 1차 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올라 9월 기준 전월 대비 0.8% 상승함.
- 서비스는 1.4% 상승으로, 9월 기준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임.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7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5.9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0.0% 1.2% 상승함.
- 9월 수출물가지수는 86.6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9% 상승하였음.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함.
- 2017년 3/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14.1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함. 9월은 115.3으로 전년 및 전월 동기 대비 각각 17.3%, 1.1% 상승함.

- 2017년 3/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5.8로 전년 동기 대비 9.9% 상승함.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80.8 (-3.2)	81.4 (-2.6)	79.9 (-4.7)	78.1 (-8.5)	83.6 (2.8)	86.2 (5.9)	84.9 (6.3)	85.9 (10.0)	85.8 (10.8)	86.6 (10.9)
농림수산물	101.9 (11.2)	98.7 (9.1)	102.0 (15.3)	102.6 (7.3)	104.4 (13.7)	104.8 (6.2)	109.9 (7.7)	114.1 (11.2)	114.0 (5.9)	115.3 (17.3)
농 산 물	145.6 (-0.1)	145.6 (2.5)	143.4 (1.8)	152.8 (-0.6)	140.6 (-4.2)	139.8 (-4.0)	149.7 (4.4)	149.8 (-1.9)	146.2 (-13.7)	146.3 (-1.0)
공 산 품	80.7 (-3.4)	81.3 (-2.6)	79.8 (-4.8)	78.0 (-8.6)	83.5 (2.8)	86.1 (5.9)	84.8 (6.3)	85.8 (9.9)	85.7 (10.8)	86.5 (10.8)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7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1.3으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8.4%, 0.7% 상승함.
- 2017년 9월 수입물가지수는 8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7%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8.8% 상승함.
 - 원재료의 경우, 광산물(9월 기준)은 전월 대비 2.7% 상승하였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8% 상승함.
 -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2%, 0.3% 상승함.
- 2017년 9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2.8로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 0.9% 상승함.
 - 천연고무, 쇠고기 등의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77.0 (-4.2)	75.8 (-7.1)	76.8 (-5.7)	75.0 (-7.7)	80.3 (4.0)	83.2 (9.8)	80.7 (5.1)	81.3 (8.4)	81.3 (9.1)	82.6 (10.8)
농림수산물	93.8 (-0.3)	93.2 (-3.8)	93.4 (0.9)	91.9 (-3.5)	96.5 (5.2)	97.9 (5.0)	93.7 (0.3)	93.0 (1.2)	92.7 (1.6)	92.8 (0.9)
농 산 물	82.2 (-3.3)	82.5 (-5.6)	82.2 (-2.1)	80.2 (-7.1)	83.9 (2.1)	86.8 (5.2)	81.4 (-1.0)	82.7 (3.1)	82.4 (3.6)	82.6 (3.5)
축 산 물	115.7 (0.6)	113.3 (-6.1)	113.7 (1.6)	114.9 (-0.1)	121 (7.7)	117.1 (3.4)	115 (1.1)	112.3 (-2.2)	111.5 (-2.1)	112.0 (-4.0)
공 산 품	83.1 (-0.8)	84.0 (0.6)	83.4 (0.1)	81.1 (-5.1)	84.2 (1.6)	85.8 (2.1)	83.3 (-0.1)	84.4 (4.0)	84.3 (4.8)	85.4 (6.3)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17년 9월 중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함.
- 2017년 9월 중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현금통화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7년 9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7.11.8.)」와 「2017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2017.11.8.)」, 「2017년 3/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2017.10.25.)」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M1 ¹	13.0	12.9	12.5	12.5	12.4	11.7	9.7	10.6	9.9	9.5	9.3	9.5	9.1	7.9
M2 ²	7.2	6.9	7.1	7.3	7.5	6.9	5.9	6.2	6.6	6.1	5.9	5.1	4.6	4.6
Lf ³	8.0	7.8	8.1	8.2	8.1	8.0	7.4	7.3	7.4	7.1	6.7	6.5	6.2	5.9
본원통화 ⁴	14.1	12.3	12.3	11.8	12.0	12.3	11.3	9.1	10.8	9.9	10.9	10.3	9.4	8.8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너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7년 10월 국고채(3년)금리는 국내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2.03% 상승함.
 - 2017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4% 상승하였음.
 - 회사채(3년)금리는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금리동향

단위: %(전월 대비)

	2016		2017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고채(3년)	1.61	1.69	1.64	1.67	1.71	1.68	1.69	1.67	1.74	1.78	1.79	2.03
회사채 ¹	2.02	2.16	2.10	2.13	2.21	2.20	2.22	2.21	2.28	2.32	2.33	2.57
CD유통수익률(91일)	1.42	1.54	1.50	1.49	1.48	1.43	1.39	1.38	1.39	1.39	1.38	1.38
콜금리 ²	1.23	1.23	1.24	1.23	1.23	1.23	1.23	1.24	1.24	1.23	1.25	1.25

-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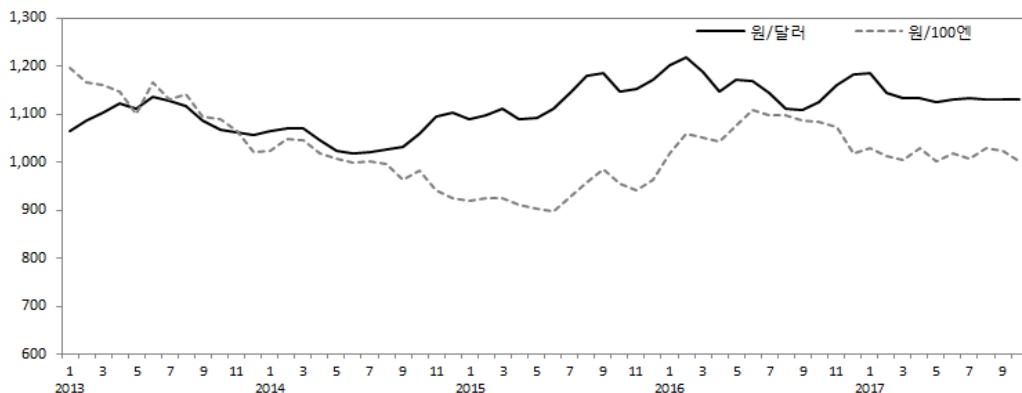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원/달러 환율(평균)은 1,132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3원 상승했고, 원/100엔 환율은 3원 상승한 1,020원임.
 - 원/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움직임 및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하였음.
- 2017년 3/4분기 원/위안 환율(평균)은 170원으로 전분기 대비 5원 상승함.
- 2017년 9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 강화 및 양호한 경제지표 등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채무각 등으로 상승하여 1,145원으로 나타남.

원화 환율 동향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원/달러	1,131	1,161	1,201	1,163	1,121	1,157	1,154	1,129	1,132	1,134	1,131	1,132	1,132
원/100엔	935	1,068	1,043	1,076	1,095	1,058	1,015	1,017	1,020	1,009	1,030	1,022	1,002
원/유로	1,255	1,283	1,325	1,313	1,251	1,247	1,230	1,243	1,330	1,306	1,337	1,348	1,331
원/위안	180	174	183	178	168	169	168	165	170	137	169	172	171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세계 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리스크가 상존함.
- 미국 경제는 허리케인 피해의 영향으로 실물지표 및 고용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9	1.5	0.8	2.2	2.8	1.8	1.2	3.1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3	-0.2	0.2	0.2	0.4	1.4	0.4	-0.9
	소매판매(전기비)	2.6	3.0	0.0	1.5	1.0	1.5	1.0	0.3	0.3	-0.2
	실업률(계절조정)	5.3	4.9	4.9	4.9	4.9	4.7	4.7	4.4	4.3	4.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1	1.1	1.8	2.6	1.9	1.7	1.9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9	6.7	6.7	6.7	6.7	6.8	6.9	6.9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1	6.0	5.8	6.1	6.2	6.1	6.8	6.9	6.4	6.0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2	10.2	10.5	10.6	10.9	10.8	10.4	10.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2.1	2.1	1.7	2.2	1.4	1.4	1.4	1.8
일본	실질GDP(전기비)	1.2	1.0	0.5	0.4	0.2	0.3	0.3	0.6	-	-
	산업생산(전기비)	-1.2	-0.2	-1.0	0.2	1.6	1.9	0.2	52.1	-0.5	1.2
	소매판매(전기비)	-0.3	-0.7	-1.3	0.0	0.5	1.5	-0.2	0.7	1.1	-1.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0	-0.4	-0.5	0.3	0.3	0.4	0.4	0.7
유로 존	실질GDP(전기비)	2.0	1.7	0.5	0.3	0.4	0.5	0.5	0.6	-	-
	산업생산(전기비)	2.1	1.4	0.9	-0.1	0.4	0.9	0.1	1.2	0.1	-
	소매판매(전기비)	2.7	1.9	0.7	0.4	0.3	0.8	0.3	1.0	-0.3	-0.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0	-0.1	0.3	0.5	1.8	1.5	1.3	1.5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7.10.13)」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중국 경제는 산업생산, 수출 등 주요 지표가 다소 조정을 받았으나,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2012년 5월 이후 최고치)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산업생산 증가 전환, 수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됨.
- 유로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PMI도 상승세가 지속됨(77개월 내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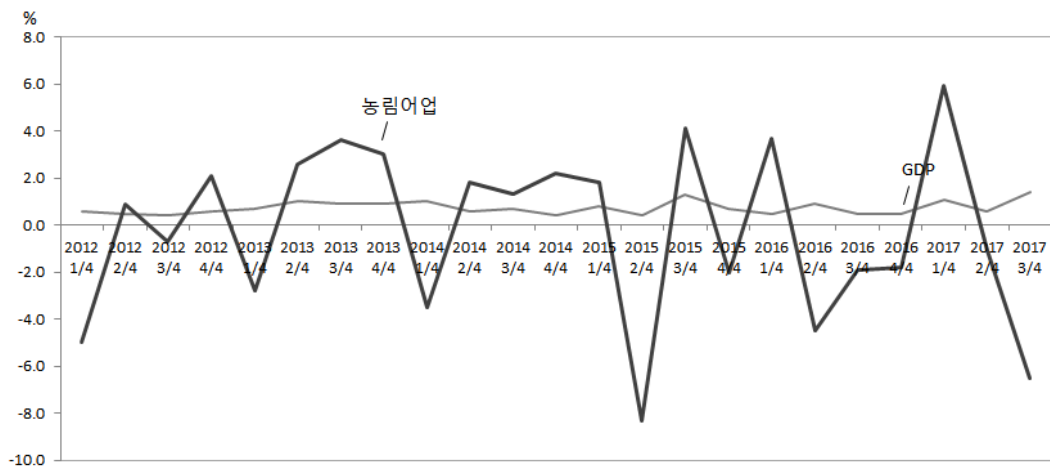
Ⅱ. 농촌경제 동향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2017년 3/4분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6조 7,20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5%, 전년 대비 3.7% 감소함.
- 2017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2조 67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전년 대비 3.6% 성장함.
- 농림어업은 채소류와 육우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2/4분기 대비 감소세를 보임.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6년과 2017년 1/4~3/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9)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노수정 연구원(nosu303@krei.re.kr),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7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 전분기 대비 5.0%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채소, 과일, 축산류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곡물류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6.0으로 가중치가 가장 큰 미곡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 전분기 대비 0.7% 하락함.
 - 미곡은 일반미와 찰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하락함.
 - 두류/잡곡은 콩, 팥, 검정콩, 옥수수 등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7.6% 상승함.
 - 서류는 고구마와 감자 가격 상승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41.3% 상승하였고, 전분기보다는 25.3% 상승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4.8로 전년 동기보다 14.8%, 전분기보다 11.9% 상승함.
 - 엽채류는 양배추와 상추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 전분기 대비 72.9% 상승함.
 - 근채류는 무, 당근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 하락함.
 - 조미채류는 마늘, 생강 등의 품목에서 하락이 있었지만, 고추, 양파, 풋고추가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6% 상승함.
 - 참외, 메론, 파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등)이 상승하면서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전분기 대비 6.5% 상승한 106.3임.
- 과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5.0으로 배, 복숭아는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사과, 포도, 감귤 등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는 5.6% 하락함.
 - 가축은 돼지와 오리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보다는 5.7% 하락하고 전분기와 비슷한 113.6임.
 - 계란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란의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0% 상승함.
- 기타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1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고 전분기 대비 28.9% 상승함.
 - 들깨, 땅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상승하면서 특용작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구 분	가중치	2016			2017		등락률(%)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3.4	115.0	107.3	118.2	112.3	4.7	-5.0
곡물	280.1	99.4	100.3	97.9	96.7	96.0	-1.9	-0.7
-미곡	234.3	100.1	101.0	101.6	89.9	95.0	-6.5	5.7
-맥류	5.5	146.8	146.3	135.5	141.8	134.5	-0.7	-5.1
-두류/잡곡	23.9	80.9	81.7	56.2	146.3	71.7	27.6	-51.0
-서류	16.4	100.3	102.8	93.7	105.7	132.4	41.3	25.3
청과물	406.5	123.6	128.2	105.7	131.9	118.2	11.8	-10.4
-채소	268.9	107.4	106.3	100.0	102.6	114.8	14.8	11.9
-과실	137.6	155.4	170.9	116.9	189.0	125.0	6.9	-33.9
축산물	252.6	113.5	114.8	117.3	126.1	119.0	1.4	-5.6
-가축	185.1	115.7	120.1	120.5	113.6	113.6	-5.7	0.0
-유란	67.5	107.4	100.2	108.7	160.2	133.7	23.0	-16.5
기타농산물	60.8	108.8	95.0	120.1	93.2	120.1	0.0	28.9
-특용작물	42.4	117.0	98.2	137.5	95.3	136.2	-0.9	42.9
-화훼	15.3	90.7	88.3	79.0	86.6	80.0	1.3	-7.6
-부산물	3.0	86.2	84.3	84.3	96.2	96.2	14.1	0.0

자료: 통계청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7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1.7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 전분기 대비 0.2%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106.7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며 전분기 대비 0.7% 하락함.
 - 종자, 비료, 농약 등의 농업용품 가격은 감소한 반면, 농기구와 영농광열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6.0% 상승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47.5로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1.0%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4.7% 상승한 148.6이며, 농기계 임차료는 전년에 비해 1.4% 상승한 125.7임.

농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

구 분	가중치	2016			2017		등락률(%)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9.3	109.4	109.9	111.5	111.7	1.6	0.2
가계용품	576.0	109.3	109.0	109.4	111.4	112.0	2.4	0.5
농업용품	376.9	105.6	106.1	106.7	107.4	106.7	0.0	-0.7
–종자	29.3	133.6	133.8	133.5	122.6	122.3	-8.4	-0.2
–비료	39.0	63.5	63.5	63.5	60.2	60.2	-5.2	0.0
–농약	29.9	123.3	123.3	123.3	120.4	120.4	-2.4	0.0
–농기구	64.0	119.9	119.5	119.5	128.0	128.2	7.3	0.2
–영농광열	26.7	71.0	69.1	73.3	79.7	77.7	6.0	-2.5
–가축	51.3	122.2	128.4	130.5	132.7	128.9	-1.2	-2.9
–사료	125.0	102.0	101.7	101.7	101.7	101.7	0.0	0.0
–영농자재	11.7	96.2	96.2	96.2	94.4	94.4	-1.9	0.0
농촌임료금	47.1	140.2	140.2	141.1	146.1	147.5	4.5	1.0
–농업노동임금	44.9	141.0	141.0	141.9	147.1	148.6	4.7	1.0
–농기계임차료	2.2	123.6	123.4	124.0	125.5	125.7	1.4	0.2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7년 3/4분기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1.0% 상승한 108.9임.
- 2017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5.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폭이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상승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농가교역조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전분기 대비 과실, 축산, 곡물 등의 하락으로 농가판매가격지수가 5.0% 하락한 반면, 농촌임료금 등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농가교역 조건은 전분기와 비교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농가교역조건지수

구 분	2016		2017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5.0	107.3	118.2	112.3	4.7	-5.0
농가구입가격(B)	109.4	109.9	111.5	111.7	1.6	0.2
농업투입재가격	107.4	107.8	108.8	108.9	1.0	0.0
농가교역조건(A/B×100)	105.1	97.6	106.0	100.5	3.0	-5.2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3. 농림어업 취업자

- 2017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0%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29만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 전분기에 비해서는 0.4% 증가함.
- 농림어업 남성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83만 9천 명이며, 여성은 2.1% 감소한 59만 8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170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1.9%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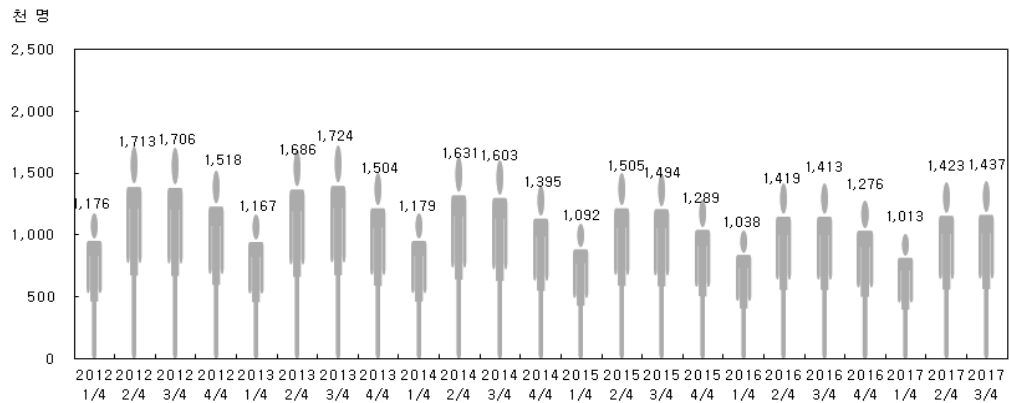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6		2017		증감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6,387	26,554	26,754	26,833	1.1	0.3
	(계절조정)	(26,115)	(26,281)	(26,484)	(26,554)	1.0	0.3
	농림어업	1,419	1,413	1,423	1,437	1.7	1.0
	(계절조정)	(1,282)	(1,269)	(1,285)	(1,290)	1.7	0.4
	남성	804	802	832	839	4.6	0.8
	여성	615	611	591	598	-2.1	1.2
	농가	1,708	1,686	1,675	1,706	1.2	1.9
	농가남성	953	932	945	952	2.1	0.7
	농가여성	755	754	729	754	0.0	3.4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4분기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3/4분기에 접어들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17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98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8%, 25.6% 감소하였으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농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10.4% 증가함.
- 2017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7억 4,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0.7% 증가한데 반해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17.7%, 1.0% 감소함.
 - 농산물 중 곡류는 쌀과 밀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였음. 과실류 수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채소류는 양배추, 당근 등의 수출액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함.

- 축산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포유육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8% 감소하였고, 가금육류와 낙농품은 각각 53.3%, 18.1% 감소함.
- 2017년 9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억 4,89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16.2% 증가하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16.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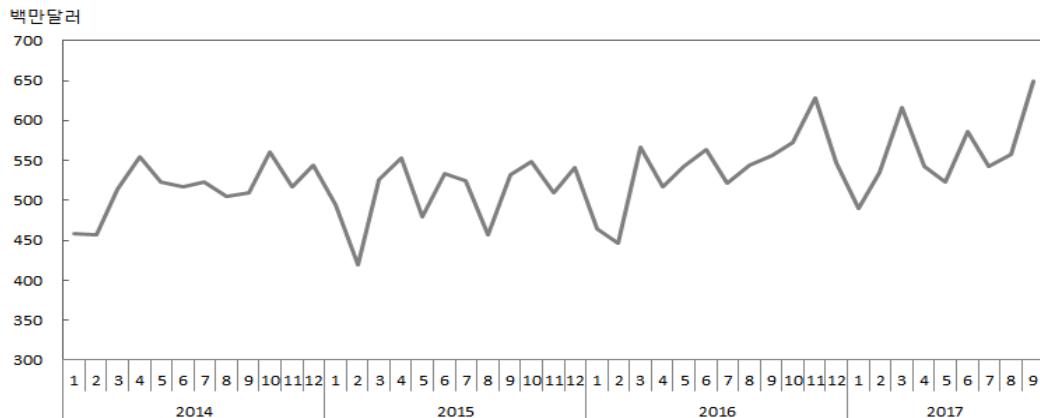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4		3/4		2/4		3/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14	1,620	976	1,621	990	1,651	986	1,749	1.0	7.9
	농산물	772	1,397	719	1,390	758	1,462	794	1,540	10.4	10.7
	－곡류	9	8	9	8	12	9	14	9	48.3	8.1
	－과실류	32	57	34	77	20	38	31	77	－9.8	0.1
	－채소류	34	85	28	77	42	88	23	73	－17.0	－5.4
	축산물	30	115	28	115	19	83	22	95	－22.8	－17.7
	－포유육류	1	5	1	7	0	2	0	3	－73.5	－63.8
	－가금육류	8	10	6	8	1	3	2	4	－76.1	－53.3
	－낙농품	9	42	9	44	8	25	8	36	－8.5	－18.1
	임산물	212	108	229	116	214	107	170	114	－25.6	－1.0
수 산 물		162	563	161	567	144	636	136	617	－15.4	8.9
전 체		1,175	2,183	1,137	2,188	1,134	2,287	1,122	2,366	－1.3	8.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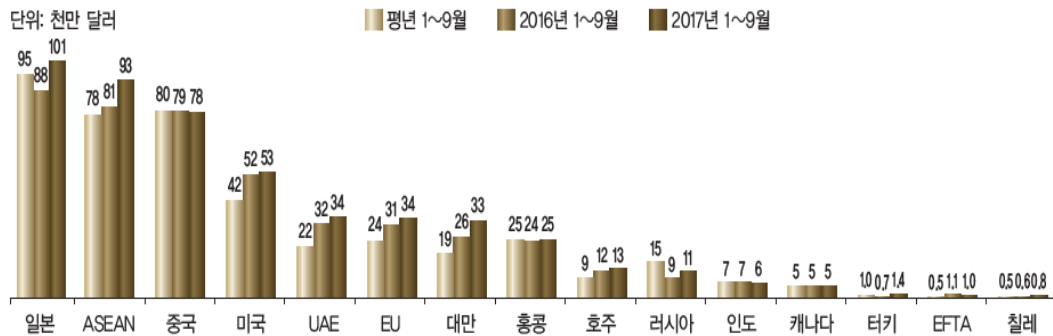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7년 9월까지 일본, ASEAN, 미국, EU, 대만 등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본으로의 누적수출액 (13.8%)이 가장 크게 증가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3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7년 4/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전분기(111.9) 대비 6.4% 상승한 119.1로 4/4분기 수출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¹⁰⁾.
 -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는 3분기 연속으로 100 이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임.
 -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와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수출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나, 수출상담, 수출계약 등을 중심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4.2. 수입 동향

- 2017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1,328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함.

10) 한국무역협회, '2017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17.09.26).

- 부류별로 살펴보면, 모든 부류에서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며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입물량도 각각 5.1%,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7% 증가함.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모든 부류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음. 농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16.9%, 임산물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중 곡류는 쌀, 보리, 옥수수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으나,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레몬 등)와 채소류(김치, 고추, 양파, 당근 등)는 각각 15.0%, 6.7% 증가함.
- 축산물은 가축치가 큰 포유육류(쇠고기, 돼지고기)와 낙농품(버터, 치즈 등)을 중심으로 수입액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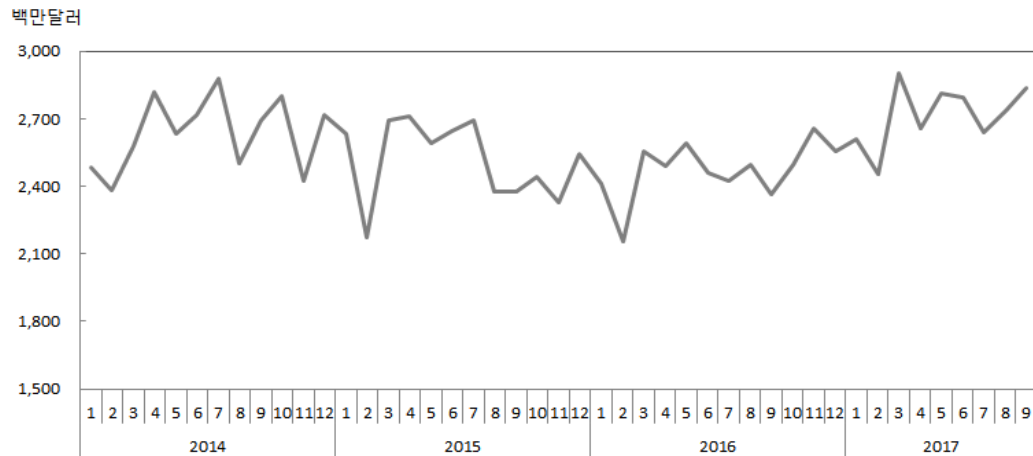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4		3/4		2/4		3/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782	7,544	12,191	7,291	13,345	8,262	13,289	8,214	9.0	12.7
	농 산 물	8,515	4,558	8,069	4,231	8,335	4,817	8,105	4,579	0.5	8.2
	－곡류	3,838	858	3,706	802	3,719	852	3,434	756	－7.3	－5.7
	－과실류	353	601	238	378	381	646	291	434	22.0	15.0
	－채소류	250	224	253	231	287	236	315	247	24.7	6.7
	축 산 물	381	1,396	393	1,542	411	1,634	413	1,802	5.1	16.9
	－포유육류	221	884	241	970	245	1,038	246	1,112	2.2	14.7
	－가금육류	35	73	32	68	31	72	34	84	4.9	23.5
	－낙농품	62	188	66	193	74	250	75	255	13.7	32.5
	임 산 물	3,885	1,590	3,729	1,519	4,599	1,812	4,770	1,832	27.9	20.6
수 산 물		1,283	1,131	1,502	1,168	1,383	1,259	1,311	1,332	－12.7	14.1
전 체		14,065	8,674	13,693	8,459	14,728	9,522	14,600	9,546	6.6	12.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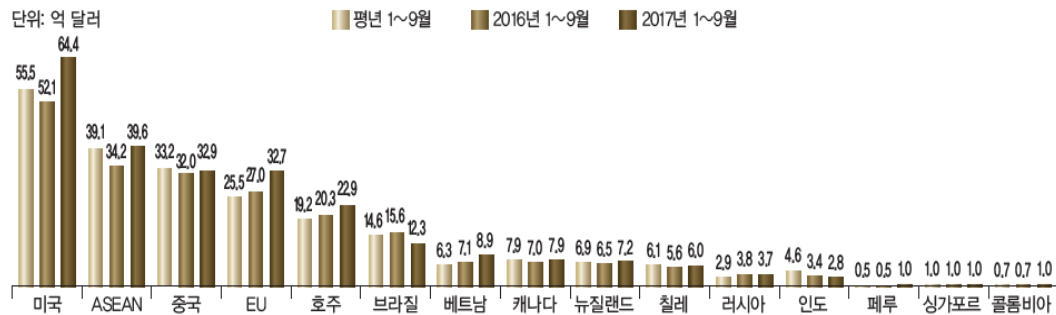
- 2017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8억 3,83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하고, 전월 대비 3.7%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3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7년 9월까지 미국, ASEAN, EU, 호주,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산 누적 수입액(23.6%)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부류별로는 곡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과일·채소, 축산물, 가공식품, 임산물)의 누적 수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3. 순수입 동향

- 2017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1,230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물량은 731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함.
 - 축산물 순수입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한 39만 1천 톤임.
- 2017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64억 6,500만 달러임.
 - 모든 부류에서 순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였고, 축산물과 임산물의 경우도 전년 동기에 비해 20% 내외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6년 3/4분기		2017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215	5,670	12,302	6,465	9.7	14.0
농 산 물	7,349	2,840	7,311	3,040	-0.5	7.0
축 산 물	365	1,426	391	1,707	7.3	19.7
임 산 물	3,500	1,403	4,600	1,718	31.4	22.4
수 산 물	1,341	601	1,175	714	-12.4	18.9
전 체	12,555	6,271	13,477	7,179	7.3	14.5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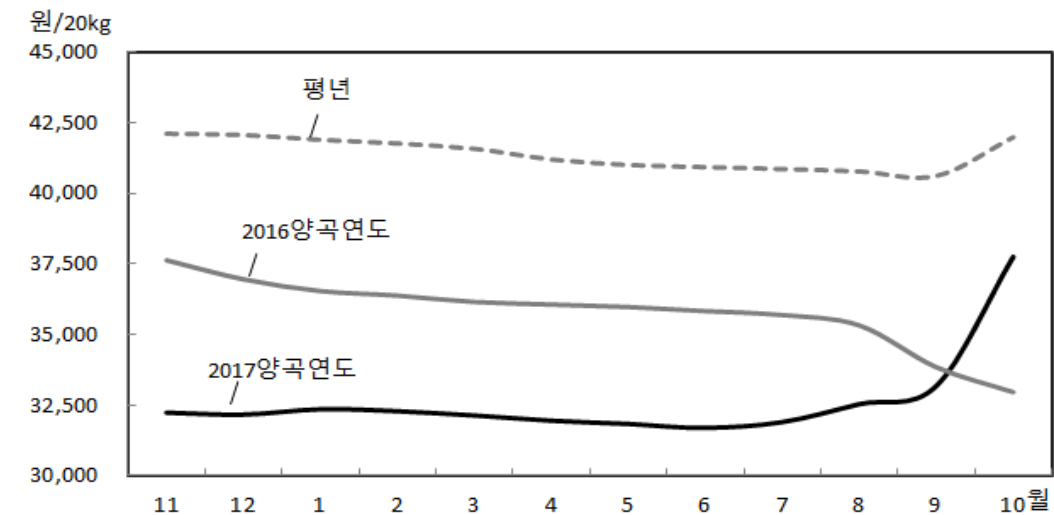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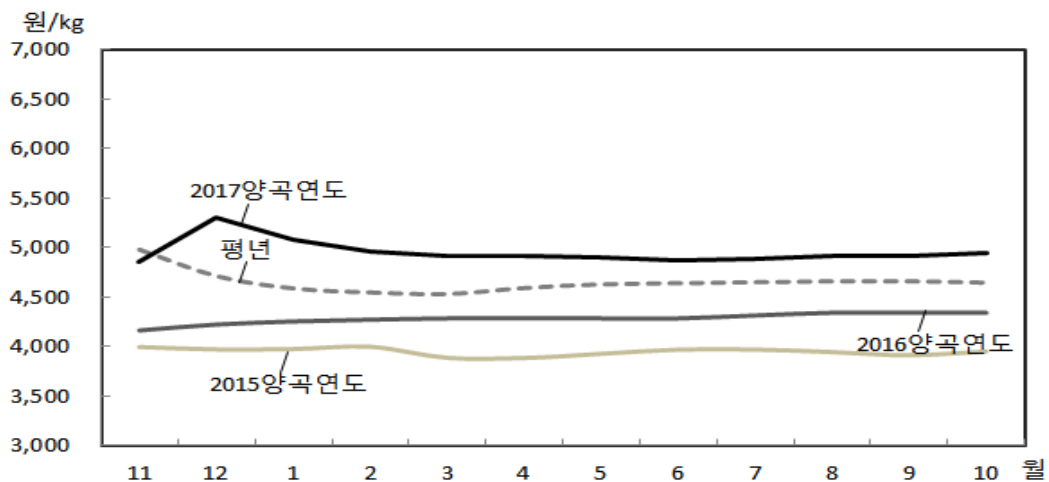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 수확기 이후 약보합세가 지속되던 쌀 가격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족 등으로 7월에 반등하여 9월까지 상승세 지속됨.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중진 연구위원(jkim@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in@krei.re.kr),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김민현(kimh9107@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신가석(k.shin@krei.re.kr), 윤승원(yse887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17년 9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3만 3,176원/20kg으로 전월 대비 2.0%, 수확기 대비 2.2% 상승함.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정부의 시장격리물량 확대 발표(9.28.)로 수급에 대한 산지 불안감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10월 5일 산지 쌀 가격은 전기 대비(9월 25일자 구곡 가격) 13.2% 상승함.
 - 단수와 재배면적 감소로 쌀 생산이 전년보다 줄어들어 따라 2017년산 수확기 쌀 시장공급가능물량은 전년 대비 7.8% 감소함.
 - 한편, 향후 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농가가 원료곡 출하를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임.
 - 2017년산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7.7% 상승한 3만 8,200원/20kg으로 2015년산 쌀 가격(3만 8,040원/20kg)수준까지 회복 전망됨.

1.2. 콩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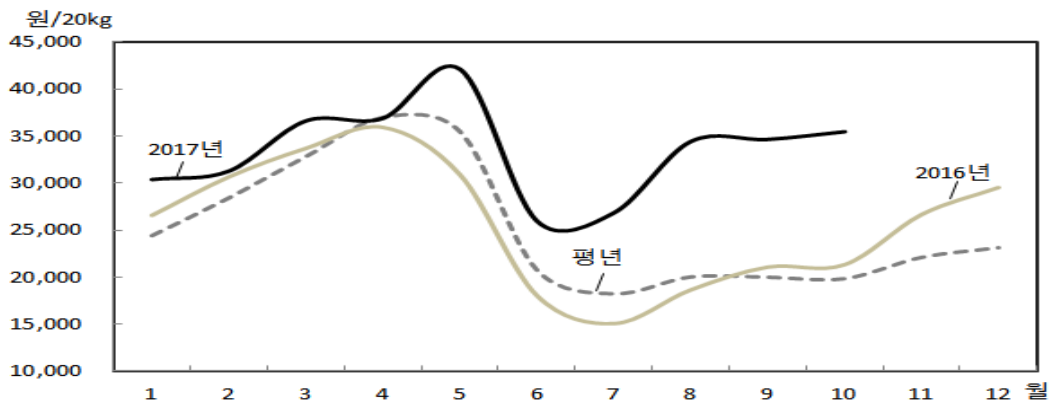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간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2017년 3/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2% 높고 전분기와 비슷(0.2% 상승)한 4,906원/kg이었음.
 - 6월까지 콩 도매가격은 경기침체로 국산 콩 소비가 부진하여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8월부터 전년도 생산량 감소 여파로 물동량이 부족하여 강보합세를 보였음.
 - 단경기 국산 콩 공급량이 많지 않고 9월 들어 일반소비자 중심으로 장류콩 소비가 증가하면서 강보합세가 유지됨.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10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4,949원/kg으로 전년 동월보다 13.9% 높고 전월과 비슷(0.6% 상승)한 수준임.
 - 11월부터 2017년산 콩 출하가 시작되면서 시장 공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확기 콩 가격은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정부가 콩 비축물량 방출을 제한하는 등 가격 상승 요인도 존재함.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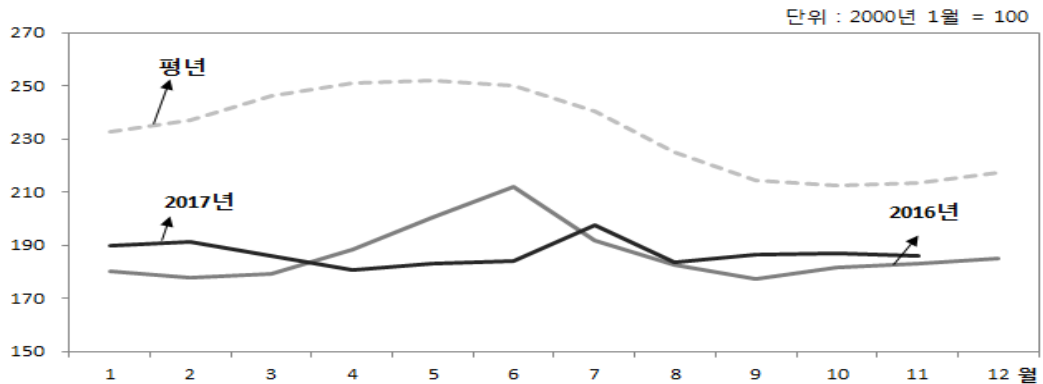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수미 평균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31,953원/20kg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0%, 평년 동기 대비 64.5% 높은 수준임.
 -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파종 시기 기름 및 수확기 잦은 비로 전년보다 24.6%, 평년보다 2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고랭지 감자 재배면적: 전년보다 9.4% 감소한 3,244ha
 - * 고랭지 감자 단위: 전년보다 16.8%, 평년보다 15.3% 감소한 2,835kg/10a로 전망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수미 도매가격은 35,461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3%, 평년 동기 대비 78.7% 높은 수준임.
 -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년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1,474ha로 이는 평년과 비슷하나 전년보다는 13% 감소한 수준임.
 - 2017년 4/4분기 가격은 가을감자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7년 3/4분기 동향
 - 2017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3.6% 상승한 189.1임.
 - 이는 개선된 곡물 수급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하반기 라니냐 발생 확률이 높아져 남미산 곡물 공급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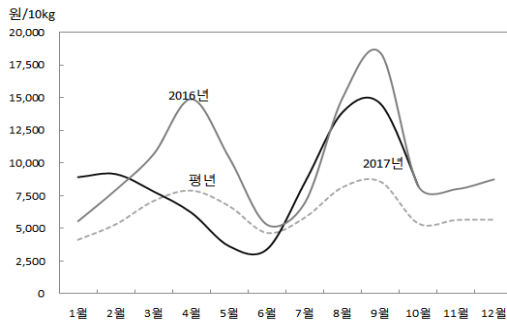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세계 밀 공급량 증가 및 미국 옥수수 생산량 증가 전망 등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187.1로 전망됨.
 - 2017년 11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호주와 아르헨티나 및 미국 중서부 지역의 기상악화 우려로 전월 대비 0.6% 하락한 185.8임. 11월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¹²⁾는 -1.63으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단계가 전망됨.
 - 2018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남반구 라니냐 발생 확률이 높아져 남미 지역 콩 작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투기자본 유입 가능성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4% 상승한 189.7임.

1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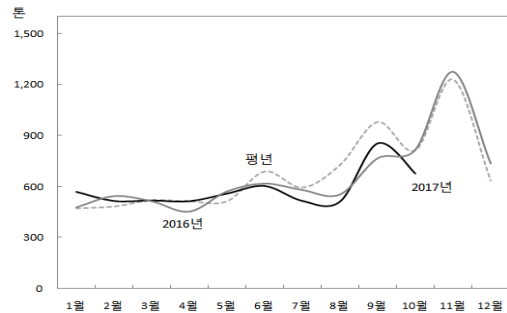
2. 엽근채소¹³⁾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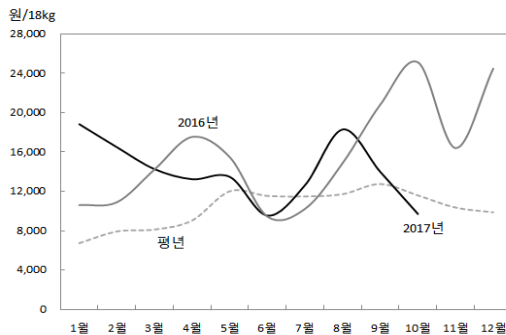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0% 낮고 평년보다는 64% 높은 12,300원/10kg임.
 - 3/4분기 가격은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늘었으나, 가뭄과 잦은 강우 등 기상여건이 나빠 작황이 부진하였던 작년과 단수가 비슷하여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음.
 - * 2017년 가격: (7월) 8,490원/10kg, (8월) 13,940원, (9월) 14,470원
 - * 3/4분기 가격: (2017년) 12,300원/10kg, (2016년) 13,610원, (평년) 7,520원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30% 증가하고 평년보다도 3% 증가한 147만 톤으로 전망
 - * 가을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20% 증가하고 평년보다는 1% 감소한 13,674ha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노호영 전문연구원(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동규(cafe022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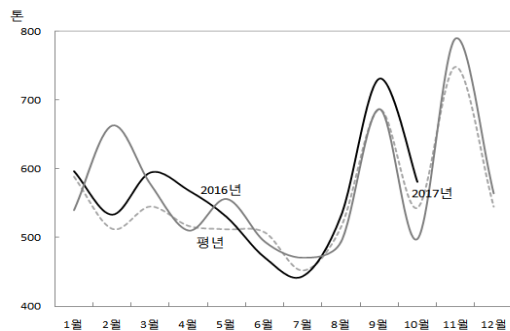
- * 가을배추 단수: 최근 기상이 좋아 정식기 고온 및 강우로 생육이 나빴던 작년보다 9% 증가한 10,752kg/10a으로 조사
- 2017년 겨울배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5%, 5% 내외 증가한 33만 톤 전망
- * 겨울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12% 증가하고 평년보다는 5% 증가한 3,872ha
- * 겨울배추 단수: 최근 기상이 좋아 잦은 강우로 습해, 뿌리혹병 등이 발생하였던 작년보다 13% 증가한 8,393kg/10a으로 조사
- 4/4분기 배추 출하량은 가을 및 겨울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많을 전망
- * 10월 출하량은 준고랭지2기작 및 가을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19% 내외 증가
- * 11~12월 출하량은 가을 및 겨울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28% 내외 증가
- 4/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8,320원/10kg)과 평년(5,570원)보다 낮을 전망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 낮은 14,920원/18kg임.
 - 3/4분기 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

* 2017년 가격: (7월) 12,470원/18kg, (8월) 18,350원, (9월) 13,950원

* 3/4분기 가격: (2017년) 14,920원/18kg, (2016년) 15,450원, (평년) 11,750원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가을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28% 증가한 51만 3천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증가한 6,003ha, 단수는 작년보다 16% 증가한 8,547kg/10a

* 가을무 작황은 파종 이후 기상이 좋아 일조가 적어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양호

– 2017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46% 증가한 35만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4% 증가한 4,618ha, 단수는 작년보다 28% 증가한 7,616kg/10a

* 월동무 작황은 기상이 좋아 일조부족 및 태풍으로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양호

– 4/4분기 무 출하량은 가을 및 월동무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많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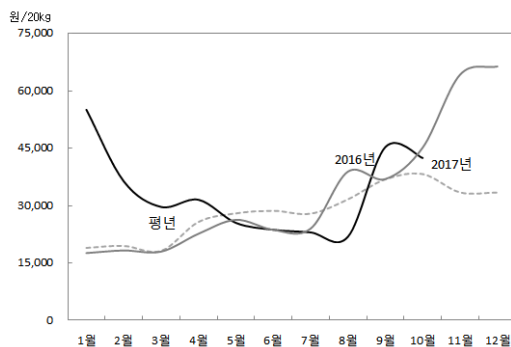
* 10월 출하량은 가을무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25% 내외 증가

* 11~12월 출하량은 월동무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4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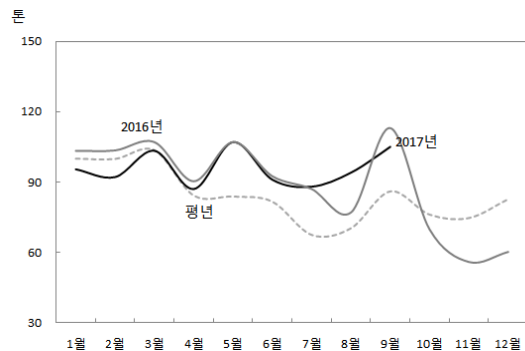
– 4/4분기 무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22,130원/18kg)과 평년(10,610원)보다 낮을 전망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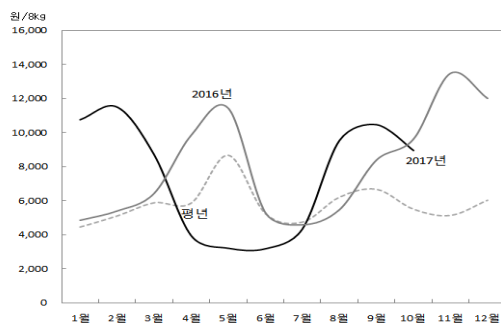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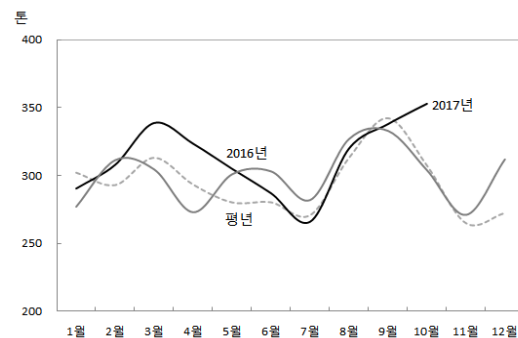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0%, 7% 하락한 수준
 - * (2016년 3/4분기) 33,150원/20kg, (평년 3/4분기) 32,060원
 - * 고랭지당근 가격 하락 이유: 고랭지당근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가을 및 겨울당근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저장수요 감소로 시장 출하량 증가.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가을당근 생산량은 작년보다 7% 증가한 9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증가한 300ha, 단수는 작년보다 3% 증가한 3,146kg/10a
 - * 가을당근 작황은 파종 이후 기상이 좋아 일조가 적어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양호
 - 2017년산 겨울당근 생산량은 작년보다 50% 증가한 5만 2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한 1,435ha, 단수는 작년보다 43% 증가한 3,587kg/10a
 - * 겨울당근 작황은 기상이 좋아 일조부족 및 태풍으로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양호
 - 4/4분기 당근 가격은 겨울당근 생산량 증가로 작년(58,570원/20kg)과 평년(35,000원)보다 낮을 전망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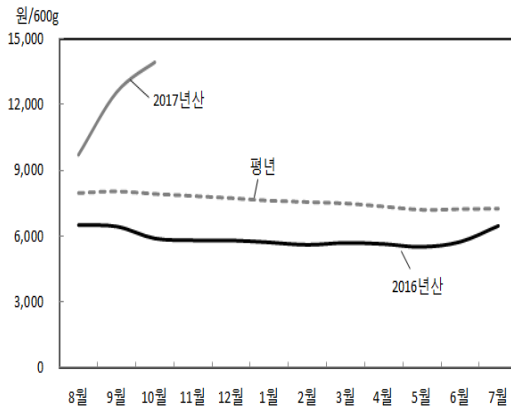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랭지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3%, 38% 상승
 - * 고랭지양배추 가격 상승 이유: 생육기인 8월에 잦은 강우로 생육이 부진하여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였음.
 - 3/4분기 월별 가격은 7월 4,250원, 8월 9,430원, 9월 10,490원임.
 - * (2016년 3/4분기) 6,050원/8kg, (평년 3/4분기) 5,860원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가을양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28% 증가한 2만 6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한 532ha, 단수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4,869kg/10a
 - * 가을양배추 작황은 파종 이후 기상이 좋아 일조가 적어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양호
 - 2017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44% 증가한 15만 6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한 3,101ha, 단수는 작년보다 39% 증가한 5,034kg/10a
 - * 겨울양배추 작황은 기상이 좋아 일조부족 및 태풍으로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양호
 - 4/4분기 양배추 가격은 가을 및 겨울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11,210원/8kg)과 평년(5,550원)보다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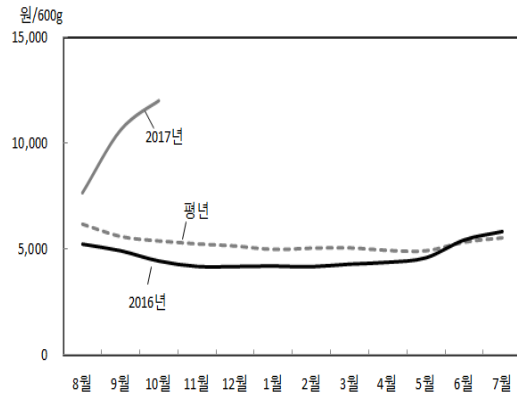
3. 양념채소¹⁴⁾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2년 8월~2017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7년 3/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3/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45%, 21% 높은 9,58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 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39% 높은 8,040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9,582원/600g, (전년) 6,609원, (평년) 7,907원

* 산지가격: (금년) 8,041원/600g, (전년) 4,861원, (평년) 5,773원

- 2017년산 생산량 감소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1,022톤) 대비 12% 적은 895톤임.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lamui@krei.re.kr), 김원태 전문연구원(wtkim@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연구원이 작성함.

- 2017년산 건고추 정식 초기 고온·건조한 날이 지속되어 생육이 부진하고, 여름철 잦은 강우로 탄저병 등 병해가 크게 확산되어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2017년산 건고추 생산 동향
 - 2017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12% 감소한 2만 8,329ha임(8. 30. 통계청).

2017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4.9	-0.6	-14.5	-7.2	-12.8	-17.8	-14.2	-7.7	-12.0

자료: 통계청

- 2017년산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15~18% 적은 217~225kg으로 전망
 - * 2017년산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10. 30), 생육초기 가뭄과 여름철 잦은 강우로 인한 병해로 전년보다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2016년산보다 25~28% 감소한 6만 1천~6만 4천 톤으로 전망

2017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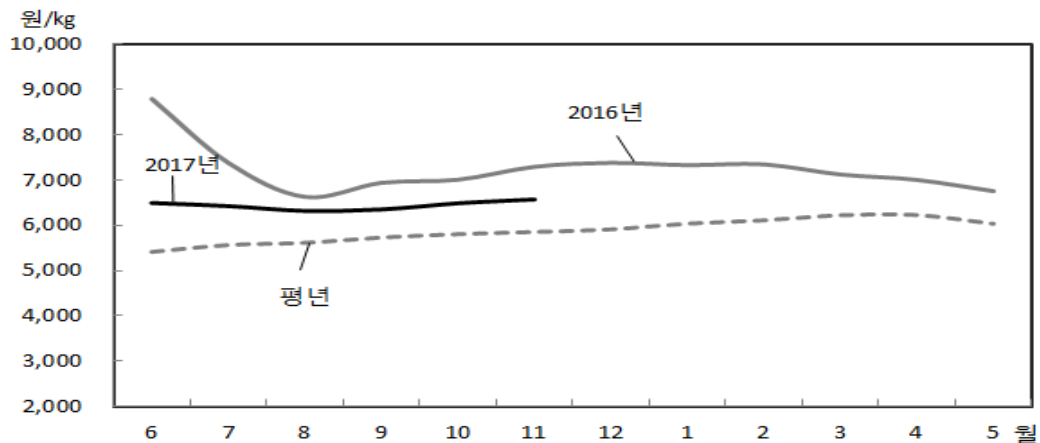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		28,329	217~225	61.5~63.7
2016		32,181	266	85.5
평년		38,665	254	98.1
증감률	전년	-12.0	-18.4~-15.4	-28.1~-25.4
	평년	-26.7	-14.5~-11.4	-37.4~-35.1

주: 2017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11% 높은 13,940원임.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월보다 13% 높은 12,000원임.
 - 2017년산 생산량 감소로 공급량 적어 건고추 4/4분기 도매가격은 평년 동기 (7,830원/600g)보다 높을 전망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2년 6월~2017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간마늘 도매가격은 2017년산 생산량 증가로 평년 동기보다 13% 높았으나, 전년 동기보다 9% 낮았음.
 -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6,364원/kg, (전년) 6,980원/kg, (평년) 5,636원/kg
 - * 월별 도매가격: (7월) 6,424원/kg, (8월) 6,318원/kg, (9월) 6,350원/kg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산 마늘 생산량과 입고량은 전년보다 각각 10%, 3% 증가하였음.
 - 2017년산 마늘 입고량 증가로 11월 상순 깐마늘 가격은 전년 동기(7,000원)보다 6% 높았음.
 - 11~12월 마늘 가격은 생산량이 적었던 전년보다 낮겠으나, 김장철 수요로 10월보다 상승할 전망
 - 10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약 8만 톤으로 전년보다 9% 많으나, 평년보다는 5% 적은 수준
 - * 10월까지의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출고량은 대서종 마늘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가져장 마늘 출하 종료가 늦어져 전년보다 18% 감소한 약 1만 3천 톤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7	95,889	13,426	2,483	79,980
2016	92,973	16,426	3,146	73,400
평년	107,000	20,000	3,277	83,723
전년 대비	3.1	-18.3	-21.1	9.0
평년 대비	-10.4	-32.9	-24.2	-4.5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7년산 3.0%, 2016년산 4.1%, 평년 3.8%)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농협의 국내산 수매·비축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되었으며, 정부 TRQ는 미포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농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2017년산 대비 증가
 -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난지형 대서종 마늘을 중심으로 2017년산 대비 4% 증가 전망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10. 20),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농가수취가격이 높았던 대서종 마늘 영향으로 금년 대비 4% 증가 전망
 - * 품종별로 한지형이 금년 대비 4% 감소하나, 난지형은 대서종을 중심으로 6% 증가(대서종은 9% 증가) 전망

- 조사치를 감안한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5,900ha 내외로 금년과 평년보다 각각 4%, 9% 증가 전망
- 기상 악화로 파종시기가 늦어졌던 2017년산과 달리 2018년산 파종은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10. 20), 2018년산 마늘 파종 비중은 금년 71.2%로 전년(51.5%)보다 많았고, 특히 영남은 85.0%로 전년(20.0%)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4.0	-4.9	-3.7	-4.2	-	-4.4
난지	9.0	17.7	-0.3	6.5	-7.4	6.3
전체	8.3	8.5	-0.4	4.7	-7.4	4.0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018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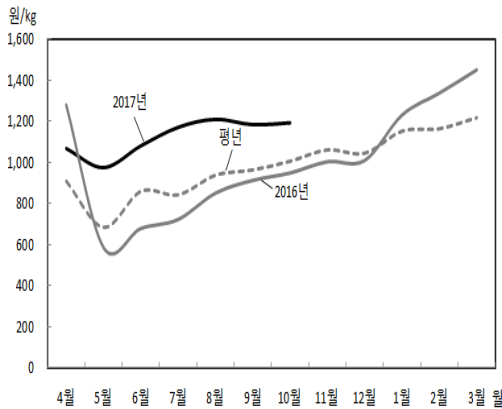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18	25,870
2017	24,864
평년	23,728
전년 대비	4.0
평년 대비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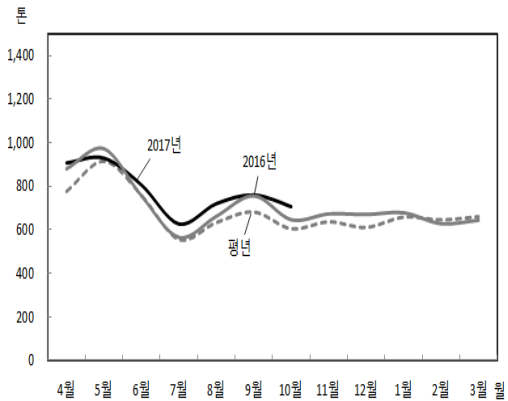
주: 2018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2년 4월~2017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적어, 전년 대비 43% 높은 상품 kg당 1,190원이었음.
- 월별 가격은 7월 1,170원, 8월 1,210원, 9월 1,180원으로 보합세를 보임. 이는 국내산 반입량은 감소했으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양파 반입량은 전년보다 6% 증가하였기 때문임.

* 3/4분기 도매가격: (금년) 1,190원/kg, (전년) 830원, (평년) 920원

● 2017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7년산 양파의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2% 감소한 1만 9,538ha(4월 27일, 통계청).
- 2017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2016년산보다 12% 감소한 114만 4천 톤(7월 21일, 통계청).

* 2017년산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6% 감소한 5,858kg임.

- 2017년산 양파 저장 동향
 - 2017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와 입고가격 상승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3%, 11% 감소한 55만 3천 톤으로 추정됨.
 - 저장업체 평균 입고가격은 전년(600원) 및 평년(670원)보다 높은 kg당 850원 내외로 추정됨.

2018년산 양파 추정 입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8		552,951	124,592	389,022
2017		631,944	139,677	437,625
평년		620,435	149,408	429,105
증감률	전년 대비	-12.5	-10.8	-11.1
	평년 대비	-10.9	-16.6	-9.3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7년산 9.2%, 2016년산 11.1%, 평년 8.9%)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전년보다는 높으나 전월 (1,180원) 대비 보합세를 형성함.
 - 11월 평균 도매가격과 비슷한 kg당 1,200원 내외로 전망됨. 이는 단경기 가격하락을 우려한 저장업체들의 출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18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17년산 대비 증가
 - 2018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7년산 양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20,770~20,920ha 전망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10. 20), 2018년산 양파 재배의향은 전년보다 7% 증가
 - * 품종별로 조생종과 중만생종이 전년 대비 각각 7% 증가
 - * 재배면적반응함수 추정 결과, 2018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6% 증가 전망

2017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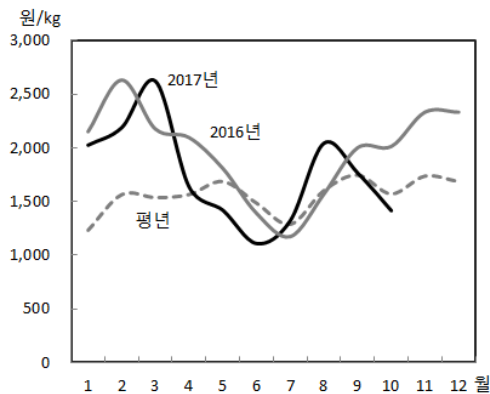
단위:천 ha, %

연산		재배면적
2017		20.8~20.9
2016		19.5
평년		19.7
증감률	전년 대비	6.3~7.1
	평년 대비	5.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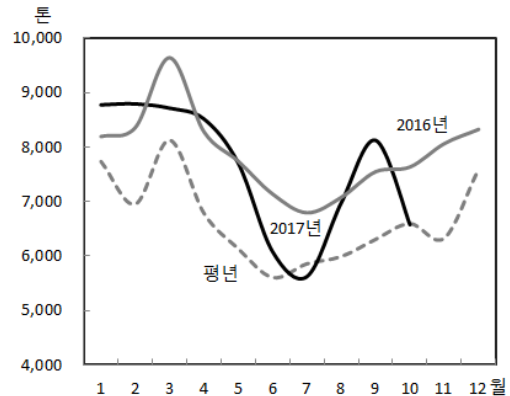
주: 2018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2년 1월~201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대파 3/4분기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710원(중품 1,420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8%, 11% 높았음.
 - * (금년) 1,709원/kg, (전년) 1,581원, (평년) 1,545원
 - * (7월) 1,320원/kg, (8월) 2,042원, (9월) 1,766원

-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에 의한 대파 생육저조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과 전월보다 각각 30%, 20% 낮은 상품 kg당 1,410원임.
 - 11월 출하량은 기상여건 호조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출하량도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4/4분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542ha 추정
 - 겨울대파는 생육초기인 여름철 잦은 강우로 작황이 나빴으나 10월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 생육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1월~내년 1월 대파 정식의향면적(내년 4~6월 출하)은 최근 대파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대파 정식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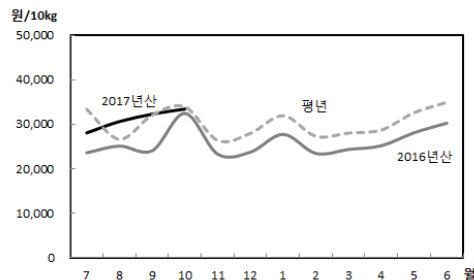
구분	경기	충청	전북	영남	전체
11월~내년 1월 정식의향면적	1.8	-2.0	-1.0	-0.8	-0.6

자료: 농업관측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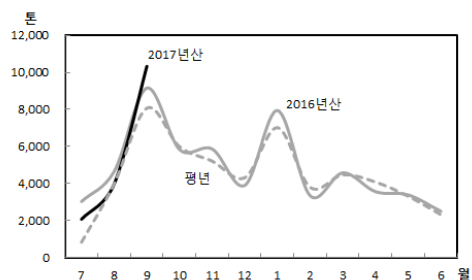
4. 과일¹⁵⁾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2~20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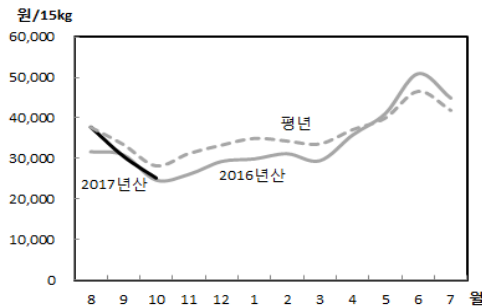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사과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27%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700원이었음.
 - 반면,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홍로 도매가격은 낮은 추석으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 성수기보다 4% 낮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7,500원이었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사과(양광)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3%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3,400원이었음.
 - 11월 후지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6% 적겠으며, 12월 이후에도 저장량 감소로 6% 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11월 이후 후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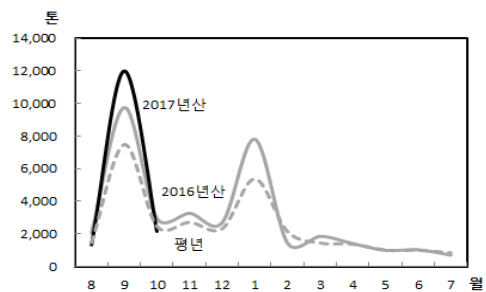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5% 적은 55만 톤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 증가하였으나, 우박 피해 및 탄저병 발생으로 단수가 전년보다 5% 감소하였기 때문임.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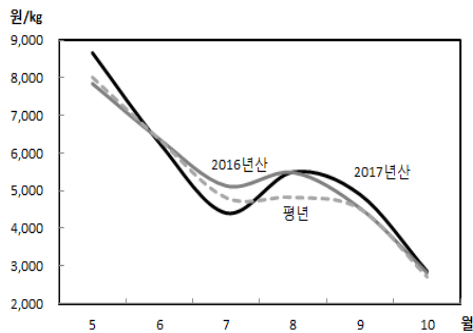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2~20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8월 원황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재배면적 감소 및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19%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8천원이었음.
 - 9월 신고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1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21% 하락하였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2% 높고, 평년보다는 15%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5천원이었음. 다만,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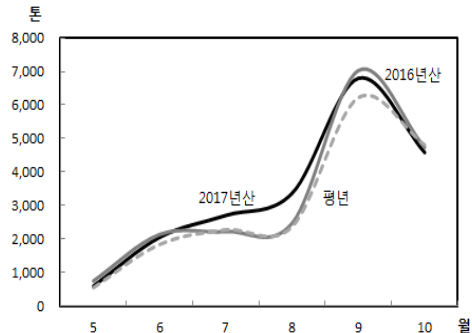
- 올해 배 저장량(11월~익년 7월)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됨. 올해는 대과 생산이 많아 11월 배 출하량은 내년 설 성수기 출하를 대비한 저장의향 증가 및 지속된 가격 약세 등으로 전년보다 4% 적겠으나, 12월 이후 출하량은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5% 많은 25만 1천 톤으로 전망됨. 이는 개화기 기상호조 및 비대기 충분한 비로 생육이 원활하여 단수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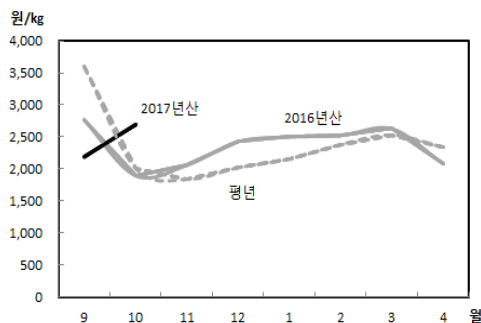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2% 낮은 kg당 4,934원이었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470원)보다 7% 높은 kg당 1,57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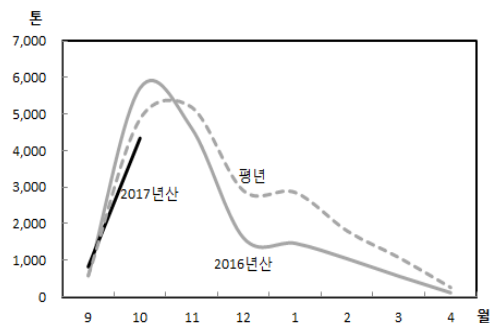
- 1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 및 1~2월 가격 상승 기대로 전년보다 11% 적을 전망이며, 12월 이후에는 3% 많을 것으로 예상됨. 올해 감귤 출하 조례 개정으로 당도가 10brix 이상이면 과실 크기에 관계없이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44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 감소하고, 해거리로 착과량이 적어 단수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9월 서촌, 10~4월 부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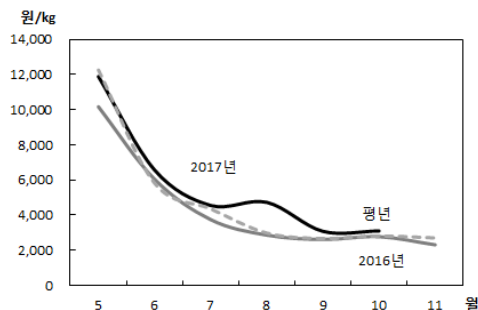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9월 서촌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1,800원으로 전년보다 13% 낮았음. 이는 낮은 추적으로 인해 태추·상서·송본 등 다양한 품종 출하로 반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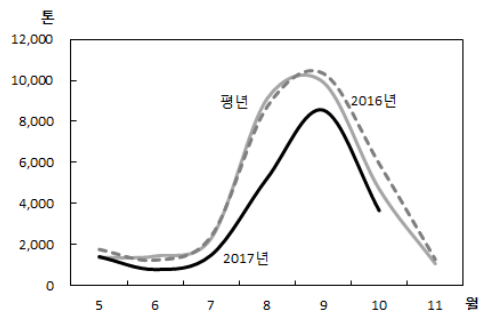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3% 상승함. 이는 생육기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과 크기가 전년보다 작아 대과와 중·소과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임.
 - 11월 단감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8% 적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이후에도 저장량 감소로 출하량은 전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2만 6천 톤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4% 감소하였고, 생육기 가뭄으로 과 비대가 충분하지 않아 단수가 전년 대비 3% 감소하였기 때문임.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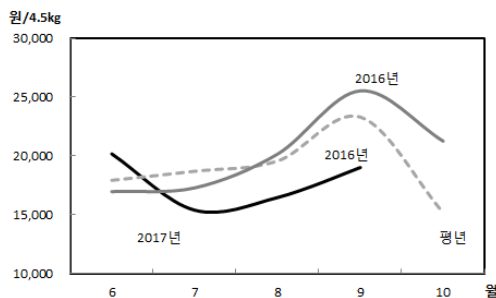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0월 캠벨얼리, 11월 MBA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8~9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9,500원으로 전년보다 43% 높았음. 이는 재배면적 감소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28% 줄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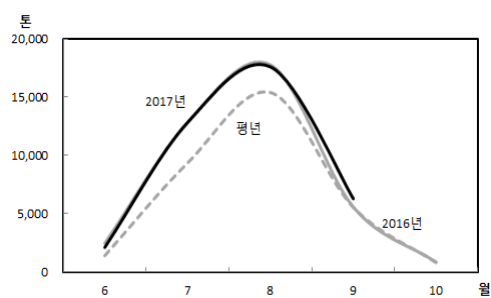
- 2017년 생산량 전망
 - － 올해 포도 생산량은 FTA 폐업지원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15% 감소한 21만 1천 톤으로 추정됨.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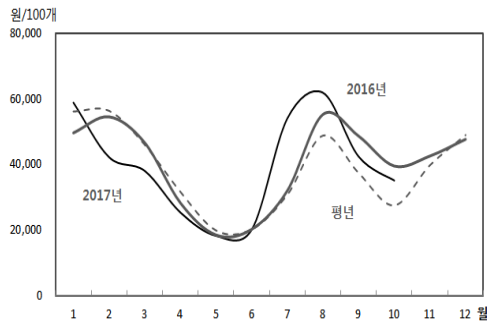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 7월 백도, 8월 천중도백도, 9~10월 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 3/4분기 복숭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19% 낮았음. 이는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2% 많았기 때문이며, 여름철 잦은 비로 품질이 저하되어 가격 하락폭이 컸음.
- 2017년 생산량 전망
 -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30만 2천 톤으로 추정됨. 이는 단수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6%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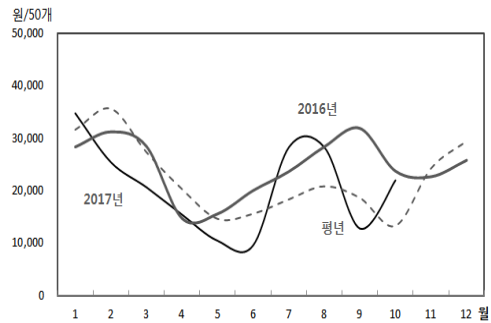
5. 과채¹⁶⁾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7월 5만 4,000원, 8월 6만 1,800원, 9월 6만 7,5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6만 1,1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높았음.
 - 백다다기오이 3/4분기 반입량은 폭우 피해로 주산지인 강원, 충청 농가들의 출하가 조기에 종료되어 전년 동기보다 18% 적었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7월 2만 8,100원, 8월 2만 8,200원, 9월은 1만 7,0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18% 낮은 2만 3,000원이었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1% 낮은 상품 100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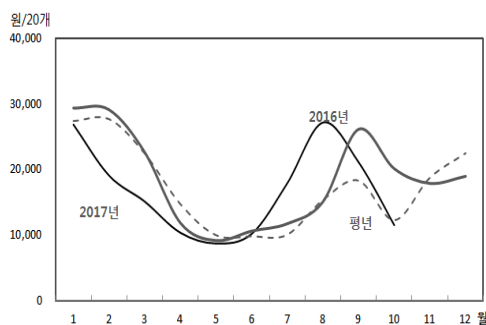
1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3만 5,000원이었음. 이는 추석 연휴로 중순까지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하순에는 기상이 나빠 지연되었던 충청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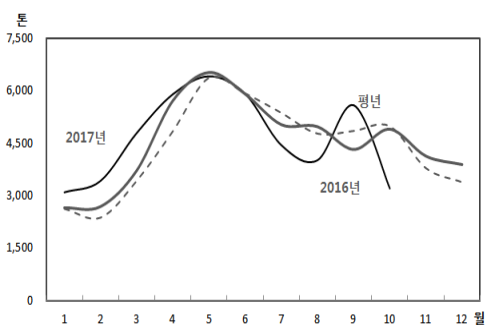
- 11~12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충청과 호남의 재배면적 증가와 경북 상주의 조기 출하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0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8% 낮은 2만 1,900원이었음. 이는 충청의 일조량 감소와 가공용 납품 증가로 중순까지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하순 충청지역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임.
- 11~12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출하지인 충청의 10월 일조량 감소로 인한 단수 감소와 전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호남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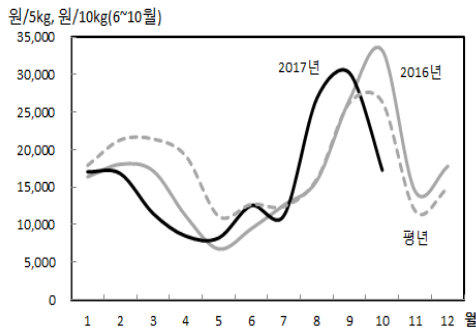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7월 1만 8,100원, 8월 2만 7,100원, 9월에는 2만 1,1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5% 높은 2만 2,1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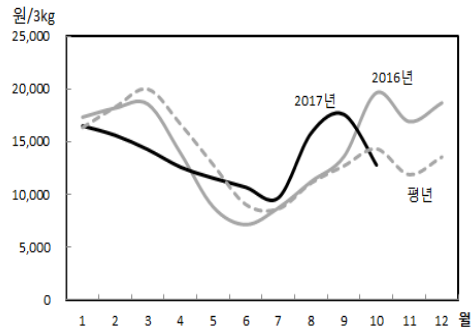
- 3/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하였음. 이는 주산지인 충청의 폭우 피해로 애호박 농가들의 출하가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임.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3% 낮은 상품 20개에 1만 1,500원이었음. 이는 추석 연휴로 중순까지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하순에는 영남의 조기 정식으로 출하가 빨라져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11~12월 애호박 출하량은 주산지인 영남과 충청, 호남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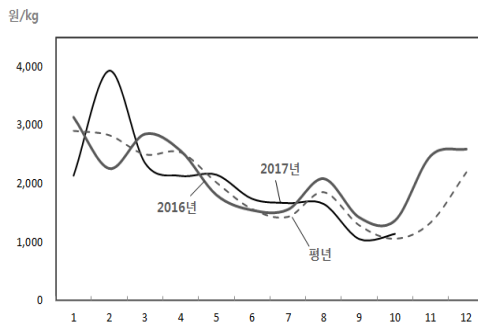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7월 일반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기상이 좋아 출하량이 증가하여 상품 10kg 상자에 1만 1,300원으로 전년보다 11% 하락하였음. 8~9월 도매가격은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상품 10kg 상자에 2만 8,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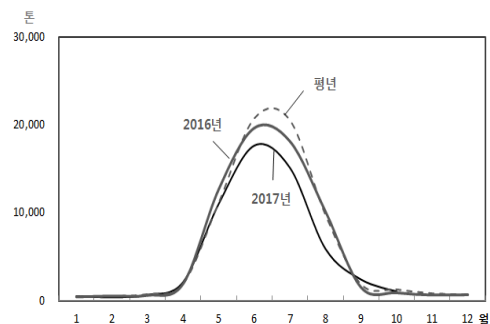
- 7~9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나빠 출하량이 감소하여 상품 3kg 상자에 1만 4,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 높았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일조량이 많아 출하량이 증가하여 상품 10kg 상자에 1만 7,300원으로 전년보다 48% 낮았고,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상품 3kg 상자에 1만 2,800원으로 35% 낮았음.
 - 11월 일반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늘고, 생육이 좋아 전년보다 각각 7%, 4% 증가할 전망이다.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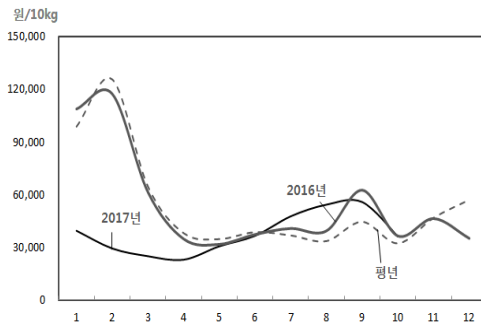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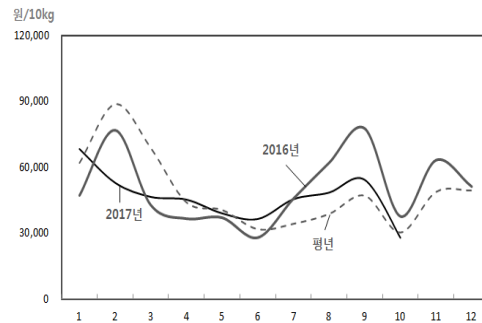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7월 1,670원, 8월 1,660원, 9월 1,06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4% 낮은 1,460원이었음.
 - 수박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하였음. 이는 최근 3년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정식면적이 줄었기 때문임.

5.5.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3/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4만 7,800원, 8월 5만 4,400원, 9월 5만 5,9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0% 높은 5만 2,700원이었음.
 -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하였음.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강원에서 병충해가 전년보다 일찍 발생하여 7~8월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높았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에는 4만 5,400원, 8월 4만 8,400원, 9월 5만 4,3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0% 낮은 4만 9,4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녹광) 7~9월 반입량은 주산지의 면적감소로 전년보다 14% 적었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청양계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1%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6,300원이었음. 10월 일반풋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6%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7,700원이었음.

- 청양계꽃고추 10월 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반꽃고추는 강원
에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출하면적이 늘었고, 영남에서 출하시기 조절로
기존보다 조기 출하하면서 반입량이 전년 대비 많았음.
- 11월 꽃고추 출하량은 영남에서 출하시기 조절로 기존보다 조기 출하하여
증가하겠음. 12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영남에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정식면적이 줄어 감소하고, 일반꽃고추는 청양에서 일반으로 품종 전환한
농가가 늘어 증가할 전망이다.

5.6. 딸기

- 2017년 딸기 정식면적
 - 딸기는 주로 8월 말~10월 중순까지 정식이 이루어지는데, 2017년 정식면적은
6천 ha로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신규 농업인(귀농인)이
유입되고, 타 작목(블루베리, 엽채류 등)에서 전환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품종별로는 설향과 죽향의 정식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2%, 7% 증가하나,
장희는 설향 등으로 품종이 전환되면서 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6. 축산¹⁷⁾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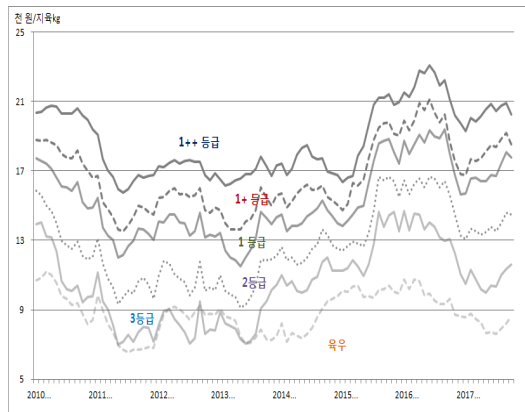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2월	12월	9월	3월	6월	9월
사육 가구 수	112	102	98	96	96	95
총 마릿수	2,904	2,769	2,861	2,734	2,882	2,939
가임 암소	1,393	1,339	1,361	1,321	1,337	1,398

자료: 통계청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7년 3/4분기 동향
 - 2017년 3/4분기부터 가축동향조사를 이력제 자료로 대체하였으며, 공식 자료로 활용함.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 6월(303만 마리)보다 5.7% 증가한 309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302만 마리보다 2.5% 증가).
 -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293만 9천 마리, 육우 15만 2천 마리
 -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39만 8천 마리(전년 동월 136만 1천 마리)
 - 추석 수요 증가로 2017년 3/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분기 16,515원/지육kg보다 5.4% 상승한 17,399원임(전년 동기 19,080원보다 8.8% 하락).

1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지인배 연구위원(j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진년(forever852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pal55@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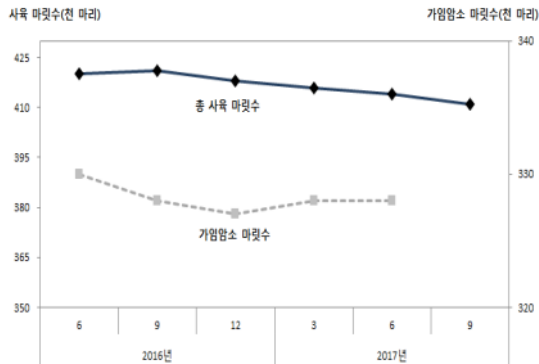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17,984원보다 1.1% 하락한 17,780원이었음.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296만 마리)보다 1.0% 증가한 299만 마리로 전망됨.
 - 도축 마릿수 증가로 11월 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약세인 16,500~17,500원으로 전망됨.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2017년 9월(A)	2017년 12월(B)	B/A
사육 마릿수	309만 마리	299만 마리	-3.3%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7~9월 17,399원	10~12월 16,500~17,500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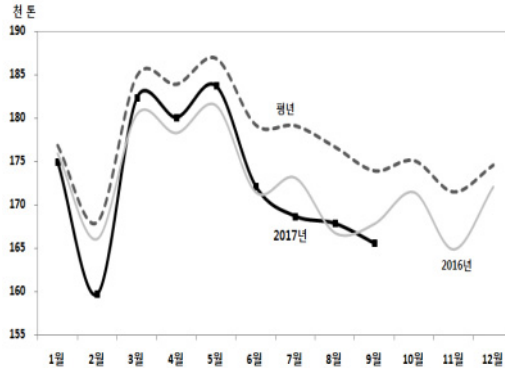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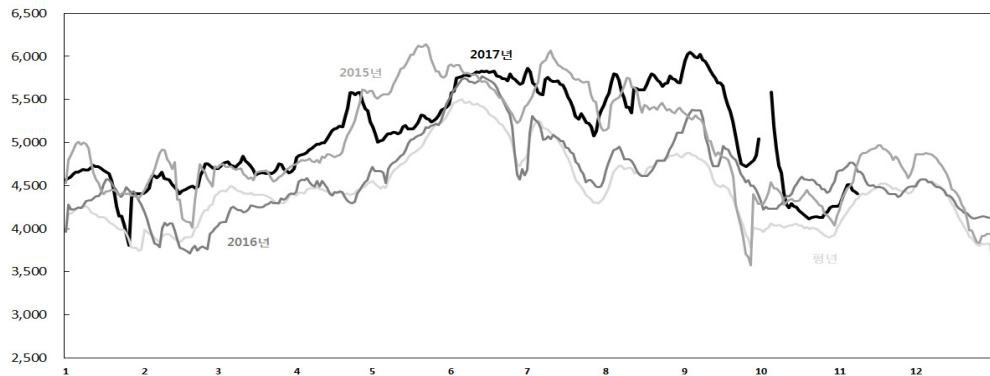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 9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한(전분기 대비 0.7% 감소) 41만 1천 마리였음. 2세 이상 사육 마릿수 및 가임암소 마릿수가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한육우와 젓소는 기존 「가축동향조사」와 「소이력제」 자료 간 소사육두수 차이에 따른 정보이용 혼란 등을 방지하고자 2017년 3/4분기부터 소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여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공동 작성함.¹⁸⁾
 - 3/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50만 2천 톤임. 이는 사육 마릿수 감소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기인함.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5~1.5% 증가한 51만 1천~51만 6천 톤으로 전망됨.

18) 통계청 「2017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내용 참조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탕박 지육가격(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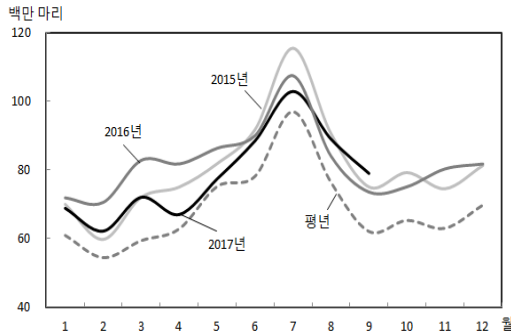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7년 3/4분기 동향
 - 2017년 9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2.3% 증가한 100만 7천 마리였음. 모든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1% 증가한 1,078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407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경락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3/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4,894원)보다 12.8% 상승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5,519원이었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모돈수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4/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444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경락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2017년 4/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됨.
 - 10월 4,281원, 11월 4,400~4,700원, 12월 4,400~4,7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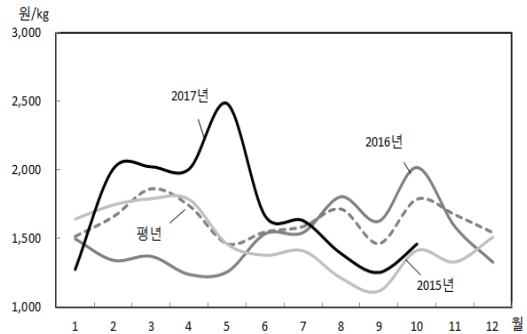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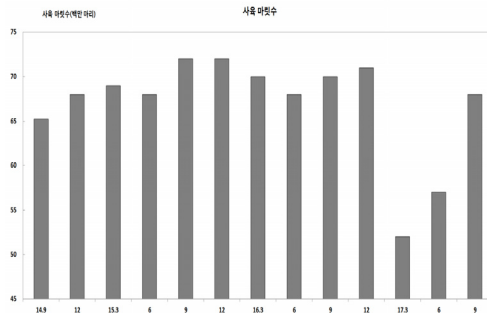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7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나,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병아리 생산 감소로 3/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2억 7백만 마리임.
 - 계란 살충제 검출 논란 등 닭고기 안전성 우려로 소비가 부진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3/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 전년 동기 대비 14.1% 하락한 1,426원/kg임.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종계 입식 증가로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이 증가하여 4/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0.6% 많은 수준인 2억 3천 9백만 마리로 예상됨.
 - 11~12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HPAI 발생시 가격은 전망치보다 하락할 수 있음.
(10월: 1,461원/kg, 11월: 1,300~1,500원/kg, 12월: 1,300원/kg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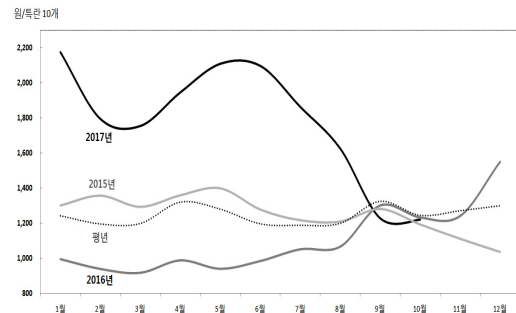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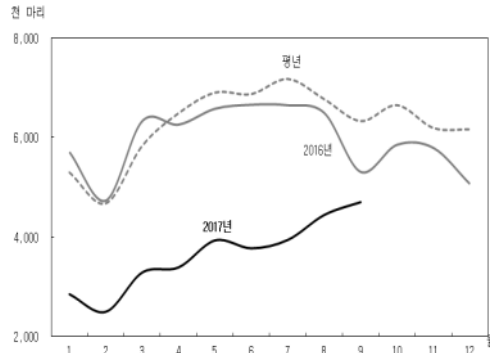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7년 3/4분기 동향
 -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한 6,783만 마리임.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7~9월)은 1,278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였음.
 - 산란 성계 도태는 전년보다 53.7% 감소한 341만 마리였음.
 - 7~9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8.0% 상승한 1,573원(특란 10개)이었음.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산란가담 신계군 증가로 10~12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석 이후 계란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성계노계도태마릿수 증가로 10~11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12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10월: 1,200원~1,300원, 11월: 1,250~1,350원, 12월: 1,300~1,400원/특란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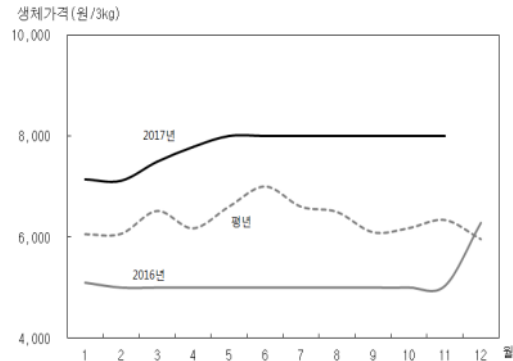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7년 3/4분기 동향
 - HPAI 발생으로 9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0.3% 감소한 698만 7천 마리임. 종오리는 전년보다 0.5% 증가한 76만 8천 마리였으나, 육용오리는 전년보다 22.3% 감소한 612만 9천 마리임.
 - HPAI 발생으로 육용오리 입식이 원활하지 못하여 3/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29.1% 감소한 1,309만 마리임.
 - 도압 마릿수 감소로 3/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60.0% 상승한 8,000원임.
- 2017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HPAI 발생으로 도압 마릿수가 감소하여 9~11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2% 감소한 1만 9,459톤으로 전망됨.
 - 10~11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한 7,700~8,200원/3kg으로 전망됨.

Ⅳ. 주요 농축산물 소비 실태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음식점 소비 조사¹⁹⁾

1.1.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1.1.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간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음.
- 조사 대상 응답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19)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노수정(nosu303@krei.re.kr), 김진년(forever852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와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소비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함.

		응답자 수(명)	비율(%)
면적	1~100㎡ 이하	237	71.8
	101~300㎡ 이하	64	19.4
	300㎡ 초과	29	8.8
직원수	1~3명 이하	251	76.1
	4~5명 이하	44	13.3
	6명 이상	35	10.6

1.1.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실태(조사결과)

- 2017년 3/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64(5점 척도)로 전년 동기(2.72)와 전분기(2.70)에 비해 다소 하락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6년 3/4분기	2017년 2/4분기	2017년 3/4분기
음식업 경기동향	2.72	2.70	2.64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32.1%)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식자재로서 농산물을 구매하면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유지가 어려운 점과(23.6%)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제기함.
 - 가격 등락에 대한 인식은 전년 동기 대비 완화되었으나(3.7%p 감소), 규격이 균일하지 않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 관련 부분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됨.

농산물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한 인식

단위: %

	2016년 3/4분기	2017년 3/4분기
가격 등락이 심함	35.8	32.1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3.0	23.6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20.0	17.3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1.8	16.4
적절한 가격 정보를 얻기 곤란함	9.1	10.3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채소류

- 2017년 3/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함.
 - － 무를 제외한 엽근채소 대부분 품목의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3.0% 감소함.
 - － 고춧가루와 대파의 구매량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1.0% 감소한 반면, 마늘과 양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채소류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3.0	고춧가루	-2.3
무	0.8	마늘	2.7
당근	-1.9	양파	0.7
양배추	-1.3	대파	-1.0
소계	-1.7	소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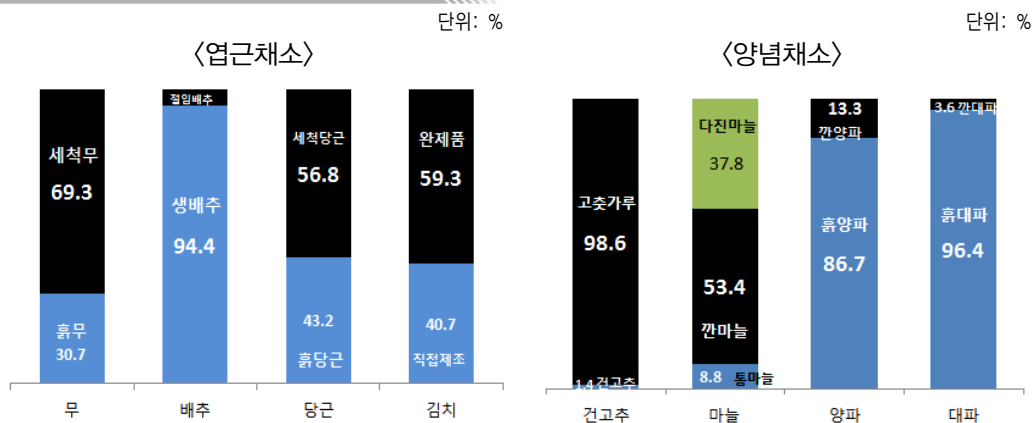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3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는 세척하거나 분쇄과정을 거친 1차 가공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추, 양파, 대파는 원물 형태로의 구입비중이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음식점업체는 전체 응답자 중 40.7%로, 절반 이상이 김치 완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채소류 품목별 구입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7년 3/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김마늘, 다진마늘), 당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배추는 신선도 유지의 어려움 등 유통과정에서 상품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신선형태로의 수입이 적으며,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의 수입이 많음.
- 무, 배추, 대파, 양배추는 전체 구매의 95%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 구매율이 높음.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6년 3/4분기		2017년 3/4분기	
	국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무	97.3	2.7	98.1	1.9
배추	98.0	2.0	98.1	1.9
배추김치	24.4	75.6	20.5	79.5
건고추	89.3	10.7	90.0	10.0
고춧가루	58.2	41.8	62.4	37.6
통마늘	59.3	40.7	77.1	22.9
깐마늘	-	-	62.5	37.5
다진마늘	-	-	63.9	36.1
훈양파	81.4	18.6	89.9	10.1
깐양파	-	-	68.0	32.0
대파	98.7	1.3	99.4	0.6
당근	63.2	36.8	64.5	35.5
양배추	97.3	2.7	95.9	4.1

주: 원산지 구입 비중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3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과채류

- 2017년 3/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오이와 애호박의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0.3% 감소한 반면, 일반풋고추 가격 하락으로 풋고추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함.

과채류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증감률	4.0	-2.7	-0.3	0.6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3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4.9%), 파리고추(5.1%), 오이맛고추(1.4%) 순으로 조사됨. 오이는 취청오이(28.6%)보다는 백다다기오이(71.4%)를, 호박은 주키니 품종보다는 애호박(88.2%)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축산물

- 2017년 3/4분기 주요 축산물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
 -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3/4분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0.5% 감소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7.3%, 6.1% 감소함.

축산물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증감률	-1.3	-0.5	-7.3	-6.1	0.1	-1.3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3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계란의 경우 개수로 조사하여 개당 50g으로 환산한 수치임.

3) 소계는 오리고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7년 3/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호주산 구입은 2.9%p 증가한 반면, 국내산 구입 비중은 2.5%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72.4%로, 다른 축종의 경우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는 전년에 비해 1.1%p 증가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국내산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국내산 구입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해 1.4~1.7%p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6년 3/4분기					2017년 3/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8.1		67.1		14.9	15.6		69.9		14.5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71.2	11.1	6.4	8.4	2.3	72.4	9.5	6.6	8.6	2.5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90.3		6.5		2.0	88.7		6.6		3.6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중국산	국내산		프랑스산		중국산
	90.7		2.7		6.7	89.2		3.1		7.7

주: 원산지 구입 비중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3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1.2. 구이 전문 음식점 육류 소비

1.2.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응답 업체는 서울 소재의 한우, 돼지고기 구이 전문 음식점 각각 100개씩 총 200개 업체로 구성하였음.
 - 구이 전문 음식점의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모집단에 가장 가까운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한식육류요리전문점 중 세부 업태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전문점 자료를 표집틀로 활용함.
- 모집단을 기준으로 제공근 비례 할당을 통해 음식점 규모별 조사표본을 선정함.
 - 비례할당은 모집단의 특성을 동일한 비율로 추정하는 것으로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농산물 소비량 조사에서는 소비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큰 음식점이 상대적으로 과소표집되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대규모 음식점 표본수 확보를 위한 보완으로 가중비례 할당(제공근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함.

축종별 음식점 규모별 표본 비중

단위: %

	50㎡ 미만	50-100㎡ 미만	100-300㎡ 미만	300㎡ 이상	합계
한우	27	28	29	16	100
돼지	35	32	25	8	100

1.2.2. 한우 음식점 부위별 육류 소비실태(조사결과)

- 구이 전문 음식점에서 한우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음식점 월평균 구매량은 4월 206kg에서 9월 177kg으로 감소하였으며, 8월을 제외하고는 4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월별 한우고기 구매량 및 재고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구매량(kg)	205.93	196.25	190.48	183.71	188.67	177.73
전월 대비 증감률(%)		-4.7	-2.9	-3.6	2.7	-5.8
재고량(kg)	14.34	10.60	5.69	5.50	5.14	4.97

- 구이 전문 음식점에서의 한우고기 부위별 취급 비율(9월 기준)을 살펴보면, 등심(44.7%)이 한우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갈비(20.7%), 특수부위(18.4%), 채끝(7.0%) 순이었음.

한우고기 부위별 취급비율(9월)

	등심	안심	채끝	갈비	특수부위	기타
구매비중(%)	44.7	5.7	7.0	20.7	18.4	3.5

- 부위별 월별 구매량 및 재고량 추이를 살펴보면 구매량은 대부분 부위에서 감소하였으며, 재고량도 구매량 감소로 인해 감소함. 한우고기 중 가장 소비 비중이 높은 등심 구매량의 경우 4월 91kg에서 9월 79kg으로 감소하였음.

월별 한우 등심 구매량 및 재고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구매량(kg)	91.33	89.07	84.74	82.55	84.01	79.46
전월 대비 증감률(%)		-2.5	-4.9	-2.6	1.8	-5.4
재고량(kg)	5.19	4.10	2.59	2.43	2.39	2.46

- 등심 이외의 부위별 구매량은 특수부위가 4월 38kg에서 9월 33kg으로 가장 큰 폭(14.8%)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갈비가 42kg(4월)에서 37kg(9월)으로 4월에 비해 1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월별 한우 부위별 구매량 및 재고량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안심	구매량(kg)	11.69	11.49	10.79	10.54	10.77	10.19
	전월 대비 증감률(%)		-1.7	-6.1	-2.3	2.2	-5.4
	재고량(kg)	1.24	0.95	0.14	0.14	0.04	0.14
채끝	구매량(kg)	13.30	13.07	12.78	12.58	12.70	12.45
	전월 대비 증감률(%)		-1.7	-2.2	-1.6	1.0	-2.0
	재고량(kg)	1.03	0.90	0.09	0.09	0.04	0.07
갈비	구매량(kg)	42.07	38.90	37.85	36.63	37.28	36.71
	전월 대비 증감률(%)		-7.5	-2.7	-3.2	1.8	-1.5
	재고량(kg)	3.35	2.22	1.74	1.74	1.64	1.51
특수 부위	구매량(kg)	38.35	34.47	35.83	33.72	35.72	32.66
	전월 대비 증감률(%)		-10.1	4.0	-5.9	5.9	-8.6
	재고량(kg)	3.02	1.78	0.75	0.78	0.65	0.47

1.2.3. 돼지고기 음식점 부위별 육류 소비실태(조사결과)

- 구이 전문 음식점에서의 돼지고기 소비는 한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음식점 월평균 구매량은 4월 355kg에서 9월 312kg으로 감소함.
 - 4~9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돼지 도매 가격은 10.7% 상승함.
 - 돼지고기 가격이 높아 개인 소비자들이 외식 소비를 줄이고 가정내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됨.

월별 돼지고기 구매량 및 재고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구매량(kg)	355.4	344.3	330.6	320.8	318.8	312.4
전월 대비 증감률(%)		-3.1	-4.0	-3.0	-0.6	-2.0
재고량(kg)	13.9	10.4	6.5	6.1	5.6	4.1

- 음식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로 조사됨. 돼지고기의 부위별 구매 비율(9월 기준)은 삼겹살이 56.3%로 가장 높았으며, 목살 18.9%, 기타(삼겹살과 목살을 제외한 부위) 24.8%로 나타남.

돼지고기 부위별 구매 비율(9월)

	삼겹살	목살	기타
구매비중(%)	56.3	18.9	24.8

- 부위별 월별 구매량 및 재고량 추이를 살펴보면 구매량은 대부분의 경우 감소하였으며, 외식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돼지고기 재고도 감소함.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삼겹살 구매량의 경우 4월 198kg에서 9월 176kg으로 감소하였음.
 - 목살 구매량은 4월 70kg에서 9월 59kg으로 감소하였고, 기타부위도 88kg에서 78kg으로 감소함에 따라 4~9월 월별 재고량도 감소세를 보임.

월별 돼지고기 구매량 및 재고량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삼겹살	구매량(kg)	198.12	186.85	181.10	177.14	176.33	175.78
	전월 대비 증감률(%)		-5.7	-3.1	-2.2	-0.5	-0.3
	재고량(kg)	6.91	5.45	3.51	3.37	3.14	2.22
목살	구매량(kg)	69.68	70.49	65.84	63.19	63.06	59.00
	전월 대비 증감률(%)		1.2	-6.6	-4.0	-0.2	-6.4
	재고량(kg)	3.25	2.21	1.58	1.47	1.24	0.96
기타	구매량(kg)	87.65	86.95	83.65	80.43	79.38	77.64
	전월 대비 증감률(%)		-0.8	-3.8	-3.8	-1.3	-2.2
	재고량(kg)	3.76	2.70	1.41	1.30	1.22	0.93

1.3. 요약 및 시사점

- 2017년 3/4분기 음식점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엽근채소와 축산물은 2016년 3/4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과채는 증가함.
 - 배추, 당근 가격 상승으로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
 - 외식 소비 위축, HPAI 발병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대부분 축종 구매량 감소
- 채소류 품목별·원산지별 구입은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무, 배추, 대파, 흙양파는 전체 구매의 95% 이상이 국내산으로, 타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산 비중이 높음.
- 음식점의 3/4분기 축산물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70%가 넘으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는 증가함.
- 2017년 3/4분기 한우·돼지고기 구이 전문 음식점에서의 구매량은 2/4분기 대비 감소하였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개인 소비자의 외식 소비가 줄고 가정내 소비는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구이 전문 음식점에서의 부위별 취급 비율은 한우의 경우 등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돼지고기는 삼겹살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됨.

2. 대량수요처 조사²⁰⁾

2.1. 조사개요

- 조사 대상 응답 업체는 업소 유형별로 김치업체와 급식업체로 구분하고 각각 30개씩 총 60개 업체로 구성하였음.
- 응답자 직위는 대부분 차장과 부장, 과장급이 전체의 46.7%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리 및 사원급도 3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실장과 주임 등은 10.0%로 비중이 낮게 나타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60	100.0
사업유형	김치업체	30	50.0
	급식업체	30	50.0
직위	대표, 임원급	6	10.0
	차장, 부장, 과장급	28	46.7
	대리, 사원급	20	33.3
	실장, 주임, 영양사	6	10.0

2.2. 수요처 및 품목별 농산물 구매실태

- 품목별 주요 구매처별 비율 조사결과, 업체별로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한 구매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김치업체는 고추(27.4%)와 마늘(25.2%)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구매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파는 도매시장으로의 구매비중이 31.5%로 가장 높았음.

20)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임효빈(hyobin@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연구원이 「대량수요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함.

- 배추와 무는 생산자 개인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급식업체의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한 구매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공처리된 형태의 구입이 가능하고 원하는 품질조건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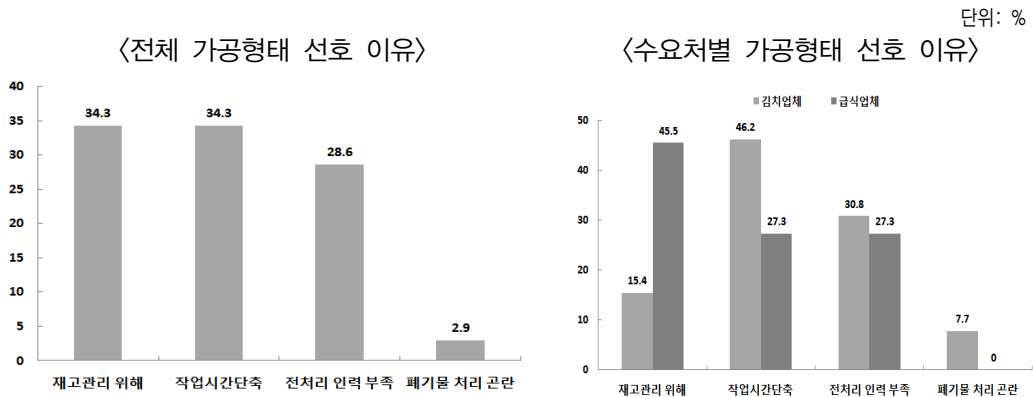
엽근 및 양념채소류 품목별 구매처 조사

단위: %

구 분		생산자 개인	지역농협	산지 유통인	영농조합 법인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재료 납품업체
전체	고추	12.7	7.7	8.0	16.8	8.4	1.8	42.8
	마늘	2.9	11.9	6.3	15.8	23.1	1.8	37.4
	양파	7.4	10.5	4.6	7.9	27.7	3.6	36.6
	배추	17.4	11.6	11.8	9.0	21.8	2.1	25.5
	무	11.9	6.8	13.6	11.4	23.1	3.5	29.8
김치업체	고추	15.8	15.1	8.1	27.4	9.8	0.0	20.3
	마늘	6.0	22.4	12.8	25.2	21.6	0.0	10.3
	양파	10.7	22.2	4.1	9.3	31.5	0.0	18.5
	배추	30.4	20.6	20.4	14.3	12.1	0.0	0.7
	무	21.4	13.3	22.2	19.1	19.0	0.0	5.0
급식체	고추	9.7	0.3	7.9	6.2	6.9	3.6	65.3
	마늘	0.0	1.7	0.0	6.7	24.7	3.5	63.5
	양파	4.3	0.0	5.0	6.7	24.3	6.8	52.8
	배추	0.9	0.0	0.9	2.3	34.1	4.8	57.1
	무	2.1	0.0	4.8	3.6	27.2	7.1	55.3

- 급식업체와 김치업체 중 58% 가량이 1차 가공된 채소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로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와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김치업체가 채소류를 전처리 및 가공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김치 제조 시 공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급식업체의 경우 전처리 및 가공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는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가 45.5%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단체 급식의 경우 식수가 정해져 있고, 휴일 등이 겹칠 경우 신선 형태로 물건을 장기간 보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수요처별 가공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대량수요처(60개 업체) 조사결과

2.2.1. 엽근채소류 구매동향

- 2017년 3/4분기 배추와 무 평균 구매량은 절임배추를 제외하고 전분기(2/4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절임배추 3/4분기 구매량은 고랭지배추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조사
 - － 통배추, 흙무, 세척무 3/4분기 구매량은 고랭지배추 작황 부진 우려에 따른 김치업체의 저장 의향 증가로 전분기 대비 각각 59%, 22%, 60% 증가
- 3/4분기 배추와 무 구매단가는 통배추와 절임배추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 통배추와 절임배추는 금년 고랭지배추 생산량 감소로 구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67% 내외 상승
- 4/4분기 배추와 무 구매예상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며, 구매단가는 하락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 통배추는 김장수요에 따른 구매량 증가로 전분기와 작년보다 각각 1% 증가하며, 통배추 구매단가는 가을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늘면서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흙무는 구매량이 전분기와 비슷하나 작년보다는 1% 증가하고, 구매단가는 가을무 생산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배추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

구분		통배추						절임배추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1/4분기		208.4	339.4	27.5	1,086	760	1,543	178.0	296.6	0.1	1,417	1,264	1,646
2/4분기		226.5	368.5	27.6	920	646	1,305	160.3	266.5	0.8	1,597	1,037	2,438
3/4분기		359.7	576.8	14.8	1,470	1,097	2,079	40.4	93.8	0.1	2,790	1,678	3,625
4/4분기		365.4	598.4	14.5	1,465	1,094	2,071	39.9	94.3	0.1	2,751	1,678	3,526
증감 률	3/4분기 대비	1.6	3.7	-2.0	-0.3	-0.3	-0.4	-1.2	0.5	0.0	-1.4	0.0	-2.7
	작년비	0.7	1.9	-0.7	0.3	1.3	-1.0	-1.2	0.0	-2.3	-0.7	0.0	-1.4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4/4분기는 추정치임.

무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

구분		흙무						세척무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1/4분기		60.5	114.8	6.1	912	479	1,346	24.4	34.6	12.5	1,394	1,143	1,690
2/4분기		52.9	99.7	6.2	890	439	1,341	23.8	35.3	10.1	1,092	948	1,262
3/4분기		64.6	120.7	5.2	814	617	996	38.0	78.5	7.1	1,013	670	1,246
4/4분기		63.8	121.2	5.1	813	616	996	38.2	78.7	7.1	1,025	670	1,276
증감 률	3/4분기 대비	-1.2	0.4	-1.9	-0.1	-0.2	0.0	0.5	0.3	0.0	1.2	0.0	2.4
	작년비	0.8	0.0	-0.9	0.6	-1.9	1.4	0.4	1.7	-1.0	0.9	1.4	0.4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4/4분기는 추정치임.

2.2.2. 양념채소류 구매동향

- 2017년 3/4분기 고춧가루 구매량은 국내산 햇고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전분기 대비 증가함.
 - － 3/4분기 국내산 건고추 구매량은 전분기와 비슷하나, 고춧가루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85% 증가. 구매단가는 건고추 생산량 감소로 건고추와 고춧가루 각각 전분기 대비 108%, 18% 상승
 - － 3/4분기 중국산 건고추, 고춧가루 구매량은 최근 국내산 고추 가격 상승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9%, 15% 증가
- 4/4분기 국내산 건고추와 고춧가루 구매량은 금년산 건고추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 4/4분기는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구매 의욕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4/4분기부터 고추 수확이 마무리되고 저장물량이 출하되면서 건고추와 고춧가루 구매단가가 3/4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건고추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

구분		건고추						고춧가루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국내산	1/4분기	2.4	2.3	2.7	6,208	6,423	5,670	5.9	7.2	3.3	10,121	9,641	11,120
	2/4분기	2.5	1.9	4.0	7,200	6,967	7,783	5.9	7.4	3.2	10,449	10,068	11,242
	3/4분기	2.5	4.2	0.0	14,958	14,537	15,515	10.9	14.5	1.0	12,339	12,645	11,516
	4/4분기	2.5	4.3	0.02	15,205	15,079	15,502	11.1	15.1	1.0	12,982	13,625	11,772
	3/4분기 대비	0.0	2.4	0.0	1.7	3.7	-0.1	1.8	4.1	0.0	5.2	7.8	2.2
	작년비	-0.2	0.0	-0.4	2.8	4.8	1.2	0.8	1.4	0.0	5.0	6.9	2.5
중국산	1/4분기	7.2	13.3	4.1	4,423	4,725	4,222	3.0	6.1	1.2	6,517	5,904	6,854
	2/4분기	7.2	12.6	4.5	5,367	5,471	5,298	2.7	5.2	1.2	6,900	6,095	7,354
	3/4분기	8.6	19.2	0	9,441	6,950	11,933	3.1	7.1	0.9	8,252	7,667	8,541
	4/4분기	8.5	19.3	0.04	9,517	7,047	11,969	3.1	7.2	0.9	8,387	7,789	8,683
	3/4분기 대비	-1.2	0.5	0.0	0.8	1.4	0.3	0.0	1.4	0.0	1.6	1.6	1.7
	작년비	-0.8	0.5	-1.9	0.4	1.4	-0.4	0.0	1.0	-0.8	1.6	2.6	0.8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4/4분기는 추정치임.

- 2017년 3/4분기 국내산 및 중국산 마늘 구매량은 김치 가공 및 조리의 편의성 때문에 깐마늘과 다진마늘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고, 통마늘은 감소함.
 - 또한 수확기인 2/4분기와 달리 3/4분기는 저장 및 저장 출하기로 통마늘 보다는 가공형태인 깐마늘과 다진마늘 유통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국내산 마늘 구매량은 김장철 가구 소비자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분기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는 마늘 가격은 저장마늘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저장비용으로 인해 3/4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마늘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

구분		국내산						수입산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통 마 늘	1/4분기	0.1	0.1	0.1	4,215	2,833	4,906	0.3	0.3	0.3	7,500	7,500	7,500
	2/4분기	1.0	2.6	0.2	4,993	3,708	5,635	0.3	0.3	0.3	7,500	7,500	7,500
	3/4분기	0.0	0.0	0.0	6,909	6,909	6,909	0.01	0.01	0.01	7,669	7,669	7,669
	4/4분기	0.02	2.2	0.02	7,006	3,728	7,051	0.01	0.01	0.01	6,873	7,540	6,817
	3/4분기 대비	0.0	340.0	0.0	1.4	-46.0	2.1	0.0	0.0	0.0	-10.4	-1.7	-11.1
	작년비	0.0	0.5	-0.4	1.2	0.5	1.6	-0.9	0.5	-2.1	-0.2	0.5	-0.8
깐 마 늘	1/4분기	4.1	5.5	1.2	6,681	6,468	7,135	1.3	3.0	0.3	1,989	2,333	1,783
	2/4분기	4.9	6.7	1.2	6,682	6,435	7,201	0.9	1.8	0.4	1,787	1,553	1,927
	3/4분기	7.7	10.4	2.1	6,690	6,373	7,346	4.4	11.3	0.2	4,697	3,644	5,257
	4/4분기	7.8	10.7	2.1	6,764	6,481	7,370	4.4	11.4	0.2	4,665	3,661	5,171
	3/4분기 대비	1.3	2.9	0.0	1.1	1.7	0.3	0.0	0.9	0.0	-0.7	0.5	-1.6
	작년비	1.3	2.7	-0.6	-0.4	-0.6	-0.1	0.0	1.4	3.9	-1.3	-1.0	3.5
다 진 마 늘	1/4분기	2.4	7.8	0.4	6,938	6,443	7,118	1.5	3.6	1.4	3,322	3,500	3,313
	2/4분기	2.4	7.8	0.3	7,110	6,438	7,354	1.5	3.6	1.5	3,575	3,500	3,579
	3/4분기	5.8	20.6	0.3	6,023	5,633	6,183	2.2	15.3	0.9	3,920	3,750	3,937
	4/4분기	5.9	20.9	0.3	6,122	5,658	6,348	2.2	15.4	0.9	3,900	3,768	3,894
	3/4분기 대비	1.7	1.5	0.0	1.6	0.4	2.7	0.0	0.7	0.0	-0.5	0.5	-1.1
	작년비	1.4	1.8	1.0	1.0	0.4	1.5	-0.2	1.0	-0.9	0.0	1.0	-0.6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4/4분기는 추정치임.

- 2017년 3/4분기 국내산 양파 형태별 구매량은 수확 이후 저장출하기에 접어들면서 고풍양파보다는 깐양파 형태로의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수입산 양파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함. 이는 금년 국내산 양파 가격 상승으로 수확기 이후인 3/4분기부터 수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4/4분기 국내산 양파 구매량은 김장철 가구 소비자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분기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증가함.
- 4/4분기 양파가격은 3/4분기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경기 가격 하락을 우려한 저장 출고량 증가로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양파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

구분		흡양파						간양파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구매량(톤)			구매단가(원/kg)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국 내 산	1/4분기	5.2	1.0	7.2	4,116	1,338	5,505	16.3	20.1	11.7	1,664	1,416	1,970
	2/4분기	7.2	4.6	8.5	3,946	1,731	5,054	15.3	20.4	9.0	1,682	1,379	2,057
	3/4분기	2.1	2.8	1.6	1,608	1,476	1,696	29.4	46.5	6.2	1,638	1,545	1,772
	4/4분기	2.1	2.8	1.6	1,625	1,482	1,724	29.9	47.4	6.3	1,649	1,549	1,789
	3/4분기 대비	0.0	0.0	0.0	1.1	0.4	1.7	1.7	1.9	1.6	0.7	0.3	1.0
	작년비	-0.2	1.7	-1.7	2.1	1.2	2.7	2.0	3.3	0.6	1.8	2.7	0.9
	작년비	-0.2	1.7	-1.7	2.1	1.2	2.7	2.0	3.3	0.6	1.8	2.7	0.9
중 국 산	1/4분기	1.1	1.1	0.0	520	-	520	0.4	1.0	0.1	611	500	667
	2/4분기	0.0	0.0	0.0	413	-	413	8.3	0.9	11.8	813	500	969
	3/4분기	3.2	3.2	7.2	1,663	-	1,663	9.6	0.0	9.6	1,994	-	1,994
	4/4분기	3.1	3.1	7.1	1,655	-	1,656	9.5	9.5	4.2	1,984	497	1,984
	3/4분기 대비	-3.1	-3.1	-1.4	-0.5	-	-0.4	-1.0	-	-56.3	-0.5	-	-0.5
	작년비	-0.8	0.0	-1.8	-0.3	-	-0.4	-1.0	0.5	-2.1	-0.5	0.5	-1.3
	작년비	-0.8	0.0	-1.8	-0.3	-	-0.4	-1.0	0.5	-2.1	-0.5	0.5	-1.3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4/4분기는 추정치임.

2.2.3. 양념채소류 수입산 구입비중

- 2017년 3/4분기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건고추와 흡양파가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김치업체의 경우, 고춧가루와 통마늘, 다진마늘, 간양파는 국산을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으나, 건고추, 간마늘, 흡양파는 중국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급식업체는 고춧가루, 통마늘, 깐마늘의 국내산 구입비중이 높은 반면, 건고추, 다진마늘, 양파는 중국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17년 2/4분기 양념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김치업체		급식업체	
	국산	중국산	국산	중국산	국산	중국산
건고추	22.6	77.4	18.0	82.0	30.7	69.3
고춧가루	77.2	22.8	66.5	33.5	52.4	47.6
통마늘	74.1	25.9	74.1	25.9	81.6	18.4
깐마늘	63.8	36.2	48.0	52.0	89.6	10.4
다진마늘	71.8	28.2	56.8	43.2	23.3	76.7
홍양파	40.1	59.9	46.1	53.9	18.2	81.8
깐양파	75.2	24.8	100.0	0.0	39.7	60.3

자료: 농업관측본부 대량수요처(60개 업체) 조사결과

2.3. 요약 및 시사점

- 대량수요처 2017년 3/4분기 엽근 및 양념채소 구매량은 대부분 증가하며, 중국산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증가함.
 - 3/4분기 국내산 채소류 구매량은 추석 수요로 절임배추, 홍양파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 국내산 통배추, 흙무, 세척무 등은 고랭지철 수급불안정 우려로 저장의향이 증가하면서 구매량이 늘었고, 마늘, 양파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3/4분기 중국산 구매량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4/4분기 국내산 및 중국산 채소류 구매량은 김장 및 개학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증가가 예상됨.
 - 개학 및 김장시기가 본격화 되면서 채소류 수요가 늘어나지만, 고랭지채소류 작황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시판김치 구매 의향이 증가하면서 김치업체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0월 하순부터는 가을작형 채소류가 동시 출하되면서 고랭지철 대비 구매 단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김치업체의 경우 배추, 양파 중심으로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소비는 감소할 전망
- 채소류 품목별 중국산 구입 비중은 가공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가 높게 나타났음.
- 4/4분기 대량수요처 채소류 구매량은 본격 김장철 시기로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채소 수급 불안으로 구매단가 상승 불가피
 - 배추, 무의 경우 11월 한파에 따른 물량 감소 가능성이 있어 대량수요처에서는 사전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
 - 양파, 마늘의 경우 저장 출하 독려 및 적절한 TRQ 물량 도입이 필요



특별주제

- ① 농산업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과 과제
- ②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농산업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과 과제*

마상진**

1. 농산업 고용 현황과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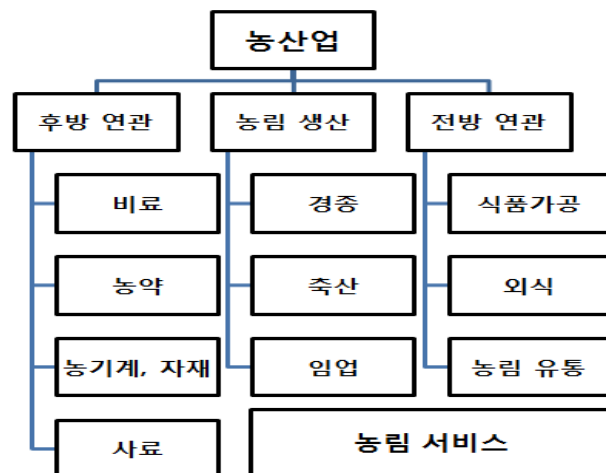
- 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 상황은 전례없이 심각한 수준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7%로 일본(5.2%)의 2배 수준임(일본 청년 실업률은 2012년 8.1% 이후 꾸준히 줄고 있음). OECD 회원국 35개 중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곳에 불과함.
 - 공식실업자 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포함할 경우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름(현대경제연구원 2016).
- 농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산업 분야는 농림축산물 생산 그리고 이들 생산에 필요한 각종 투입재(종자,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농자재 등)와 관련 서비스(농림토목, 연구, 교육, 컨설팅) 산업 그리고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와 관련된 산업 등을 포함함.
 - 농업생산 분야의 경우 농가(2015년 현재 108만 가구)뿐 아니라 많은 농업법인^{*}이 있는데, 2014년 현재 농업법인은 16,482개(영농조합법인 11,599, 농업회사법인 4,883)로 102,296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간 증가율이 10% 수준임.

* 본고는 2017년에 발간된 농정포커스-제148호 「농산업 청년고용 창출 가능성과 과제」를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msj@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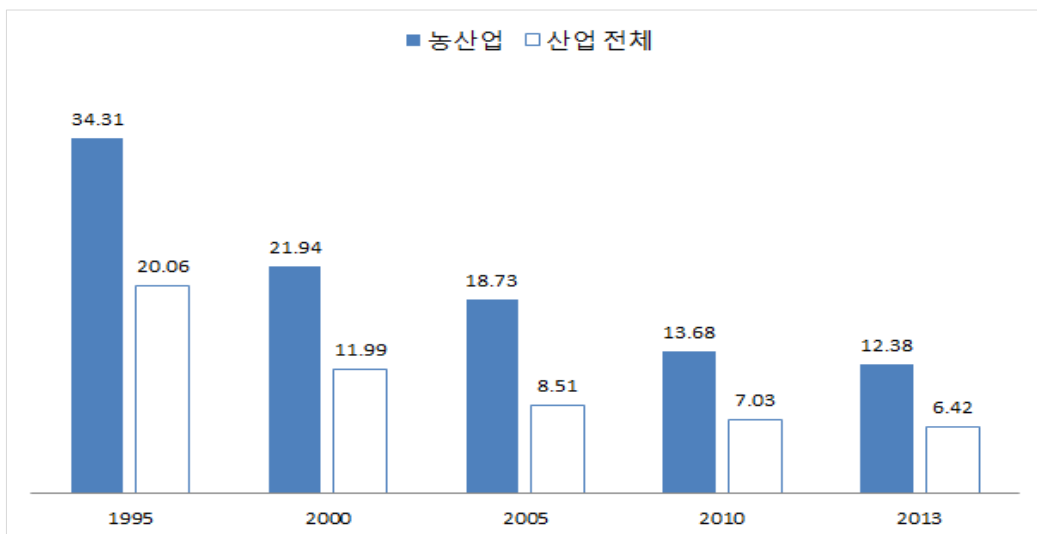
- 농기계 분야의 경우 최근 수출 부문이 활성화되어 있고(2015년 수출 규모 9억불 수준), 4대 대규모 업체(대동, 국제, 동양, 엘에스) 외에 중소기업 700~800여 개가 있으며 시장 규모는 2.7조 원대, 종사자 규모는 1.5만 명 정도임.
- 비료(무기질) 생산 분야의 경우 6대 대기업 외 30~40개 중소기업이 있으며, 연간 6,000억 원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2천여 명 수준임. 농약 분야는 연간 1조 4,000억 시장으로 (주)팜한농, (주)농협케미컬 등 주요 회사 외에 100여 개 중소회사에 2만여 명이 종사함.
- 식품산업 분야의 경우 농산물가공(정곡, 제분 및 식료품), 축산가공(육류, 낙농품), 음료 제조업 등의 사업체가 2014년 현재 4,983개이고 시장 규모는 79.9조 원, 종사자 규모는 19.4만 명임.
- 외식산업 분야는 제네시스 BBQ, 놀부 NBG, (주)동원홈푸드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와 더불어 중소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2014년 기준 65만 개 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189.6만 명 규모이고, 시장 규모는 83조 원임.
- 농관련 행정, 금융, 교육, 연구, 컨설팅 등의 직·간접 서비스 분야에 농업 공공기관, 농협, 학교, 연구소, 컨설팅업체 등에 약 19만 명이 종사함.

농산업의 범위



- 농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침체로 실업 문제가 클 때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음. 농산업 분야의 경제 규모는 총산출액 기준 320조 원(전체 산업대비 8.9%)이고, 고용규모는 취업자수 기준 396만 명(전체 산업대비 17.1%)임(한국은행 2016). 취업계수(산출액 10억 원당 취업자 수)가 1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6.4명)의 2배에 이름.

농산업 취업계수 변화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 향후 농업 생산 부문 종사자 수는 감소하겠지만, 관련 서비스, 식품가공, 외식, 유통 분야 등은 증가가 예상되고, 분야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함.
 -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부문 성장률과 취업계수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3~2013)을 이용한 농산업 부문별 종사자 전망을 함¹⁾.
 - 부문별로 2023년까지 연평균 종사자수 변화율을 보면 농림 생산 부문 1.0%, 농림 투입재 부문은 1.2% 감소가 예상되지만, 농림 서비스 부문 0.3%,

1) 한국은행(2016)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2013년 종사자 수에서 한국고용정보원(2014)의 2013~2018년 및 2018~2023년 구간별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농림식품가공 부문은 1.0%, 외식 부문은 0.4%, 농림 유통 부문은 1.2% 증가가 예상됨. 즉, 농림 서비스 부문은 6천 명, 농림식품가공 부문은 3.8만 명, 외식 부문은 6.3만 명, 농림 유통 부문은 5.1만 명 등 총 24만 명 정도가 더 종사할 것으로 전망됨.

농산업 종사자 전망

단위: 천 명

산업 부문	2013	2018	2023	종사자 증감		연평균 변화(%)		
				'13~'18	'13~'23	'13~'18	'19~'23	'13~'23
농림 생산(A)	1,418	1,303	1,287	-116	-131	-1.7	-0.2	-1.0
농림 서비스(B)	187	190	194	3	6	0.3	0.4	0.3
농림 투입재(C)	40	36	35	-4	-4	-2.0	-0.3	-1.2
농림식품 가공(D)	357	375	396	17	38	1.0	1.1	1.0
외식(E)	1,549	1,580	1,612	31	63	0.4	0.4	0.4
농림 유통(F)	412	451	463	39	51	1.8	0.5	1.2
농산업 전체	3,963	3,934	3,987	-29	24	-0.1	0.3	0.1

- 농산업 종사자수 전망치와 2013년 시점 종사자의 연령²⁾을 고려하여 은퇴자 규모를 추정한 근거로 농산업 분야의 부족 인력 규모를 도출한 결과, 2023년 시점(2013년 기준)에 116만 명 정도였음. 농림 생산 부문에 61만 명, 외식 부문에 34만 명, 농림식품 가공 부문에 9.8만 명, 농림 서비스 부문 2.9만 명, 농림 투입재 부문 5천 명, 농림 유통 부문 8만 명 규모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농산업 고용창출 규모 추정(2013년 기준)

단위: 천 명

산업 부문	은퇴 예상 인력		필요 인력 규모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농림 생산(A)	419	626	303	611

2)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별 취업자 연령자료를 근거로 함.

산업 부문	은퇴 예상 인력		필요 인력 규모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농림 서비스(B)	11	25	14	29
농림 투입재(C)	2	6	-1	5
농림식품 가공(D)	38	77	55	98
외식 (E)	129	304	160	336
농림 유통(F)	38	68	76	80
농산업 전체	636	1,106	607	1,159

주: 은퇴 예상인력은 종사자가 은퇴 연령을 65세(단 농림 생산 부문은 75세)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마상진 외(2016)

2.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우수 사례

- 제주 친환경 농업학교(보타리 영농조합법인)는 농업계 학생 및 귀농자에게 도제식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16농가의 농촌 정착을 도움.
 - 제주 친환경 농업학교 대표는 농고 교사 출신으로, 영농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학생 및 청년들을 교육하기 시작함(1999년부터 약 10만 명 정도, 연평균 5,000여 명 정도).
 - 영농교육을 받은 후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제식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내 고령농의 농장을 인수하도록 주선함. 이후 해당 농가와 의 공동 생산을 통해 보타리 영농조합법인 전체의 생산을 규모화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접목하여 전체 법인의 사업을 다각화하였음.
 - 현재까지 졸업생 16명이 제주 보타리 지역 인근에 정착함. 보타리 지역 12만 평에 금산자연농원-JAS(유기농산물 채소 과수), 보타리영농팜(채소류 건조, 저염 양배추 김치제조), 이건조(주)(상온진공 건조시스템, 효소발효기계), 농부와 스승(귀농, 친환경인증농가모임), 푸른제주영농조합(친환경채소류경매, 친환경 학교급식), 보타리에너지(주)(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업, 태양광연구소) 등을 창업하여, 각자 독립 운영하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은 구례군과 협력 하에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고
관람은 일자리를 갖춰 현재까지 511명의 지역 고용을 창출함.
 - 아이쿱 생협은 2011년 구례군과 MOU를 맺고 군 농공단지 터를 매입하여
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기 시작함. 2014년 4월 오픈한 자연드림파크에는 현
재 14개 생산법인이 17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음. 연간 매출액은 1,286억
원, 연간 9.7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음.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지역농산물
을 구매하여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함.
 - 직원들 평균 연령은 38세로, 2014년 250명으로 시작해 3년만에 채용 인원이
92% 증가하였음.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젊은이가 돌아오는 지역’을 모토로
하여 법정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임금을 지급해주고, 보육(어린이집),
문화(영화관, 커피숍, 스포츠센터 구비), 주거(사원아파트), 의료 등 삶의 질
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가 지원 가능하도록 복지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전남자연과학고(구, 구례농고)와 연계하여 아이쿱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도
록 강사파견, 현장실습지원,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 실습생 전원채용 등
의 산학연계 활동을 하고 있음³⁾. 예전에는 전남자연과학고 졸업생은 지역
내에 취직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진출하곤 했는데 자연드림파크가 생긴
이후 여기에 매년 10여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현재 30여 명이 일하고 있음.
 - 아이쿱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상 성격으로 농산업 분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분야별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이쿱은 사원(신입, 경력) 교육을 위한 직업학교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진천농고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지역 식품·바이오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생 취업률 90% 이상을 달성함.
 - 진천농고(1951년), 진천농공고등학교(1993년) 등을 거쳐 지역에 산업단지가
유치되면서 2012년 식품과 제약 분야 바이오 명장 육성을 목표로 마이스터고로

3) 아이쿱은 전남자연과학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와 농식품 생물소재산업 인력육성을 위한 협의회를 마련하여 식품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음. 이 사업은 전남 일자리정책실 주도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이뤄진 사업으로 지역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발굴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전환함. 학생들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고, 기숙사가 제공됨. 학교 교육을 통해 성취한 모든 활동·평가 내용이 진로 경로에 체계적으로 기록·인증됨. 또한 졸업 이후 3년 이상 근무시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취업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됨. 그리고 취업 확정시 최대 4년간 입영 연기가 가능함.

- 마이스터고 전환 이후, 지난 4년간 제약 분야 28개 업체, 식품 분야 31개 업체 등 총 59개 업체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였고, 졸업생 100명에 237명의 취업약정(중복약정 포함)을 체결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업체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생산현장 견학, 인턴십,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 기술 강사 특강 등 현장교육이 실시되고, 협약기관 맞춤형을 이수한 학생은 신입사원 채용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2015년 이후 3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 기록: 92.9%(2015) → 92.7%(2016) → 91.5%(2017)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의 성공 비결은 지역의 공단 또는 관련 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기로 약속한 뒤 학교가 이를 지키는 데 있음.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역량에 대한 기업의 평가도 매우 호의적이어서, 웬만한 전문대생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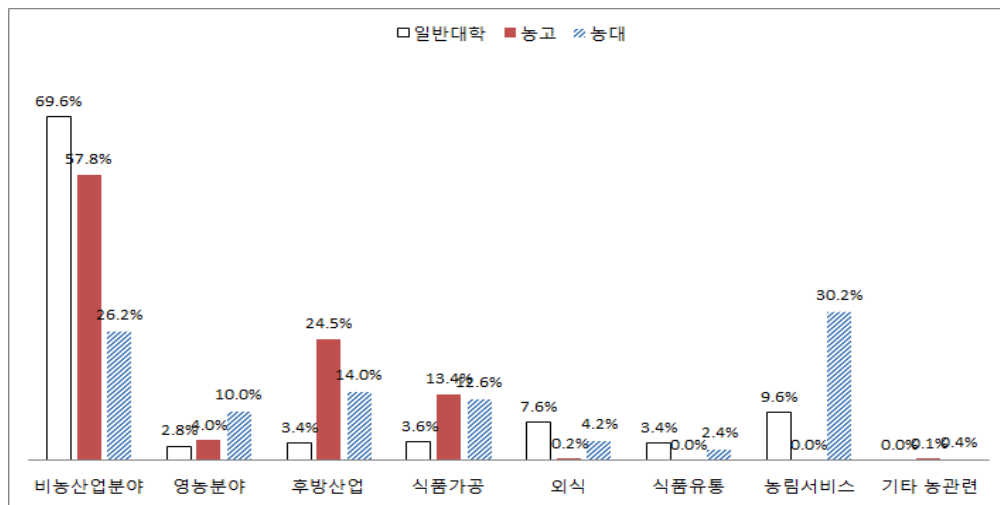
● 시사점

- 현장 중심의 도제식 창업 교육과 창업 후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해 농업 생산 부문도 성공적으로 창업자들을 안착시킬 수 있음.
- 산업체가 입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보수, 숙소, 각종 문화 여건 등의 근무조건을 높임으로써, 농촌에서도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약정 등 적극적 산학협력을 통해 농업계 학생들의 취업률이 증대될 수 있음.

3. 농산업 분야 청년 진출의 가능성과 요구

- 농업계 학생, 일반계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향후 진로계획을 조사한 결과⁴⁾ 농고생의 42.2%, 농대생의 73.8%, 일반계 대학생도 30.4%가 진출 의사가 있었음.
 - 농고생들은 투입재산업(후방산업) 분야 진출의향이 24.5%로 가장 높았고, 식품가공 분야(13.4%), 영농 분야(4.0%) 순으로 많았음.
 - 농대생들은 농산업 분야 중에 농림서비스 분야 진출 의향이 가장 많았고 (30.2%), 후방(투입재)산업(14.0%), 식품가공(12.6%), 영농(10.0%), 외식(4.2%), 식품유통(2.4%) 등의 순이었음.
 - 일반 대학생의 경우 농림서비스(9.6%), 외식(7.6%), 식품가공(3.6%), 식품유통(3.4%), 후방산업(3.4%)뿐만 아니라 영농(2.8%) 분야 진출의향도 있었음.

학생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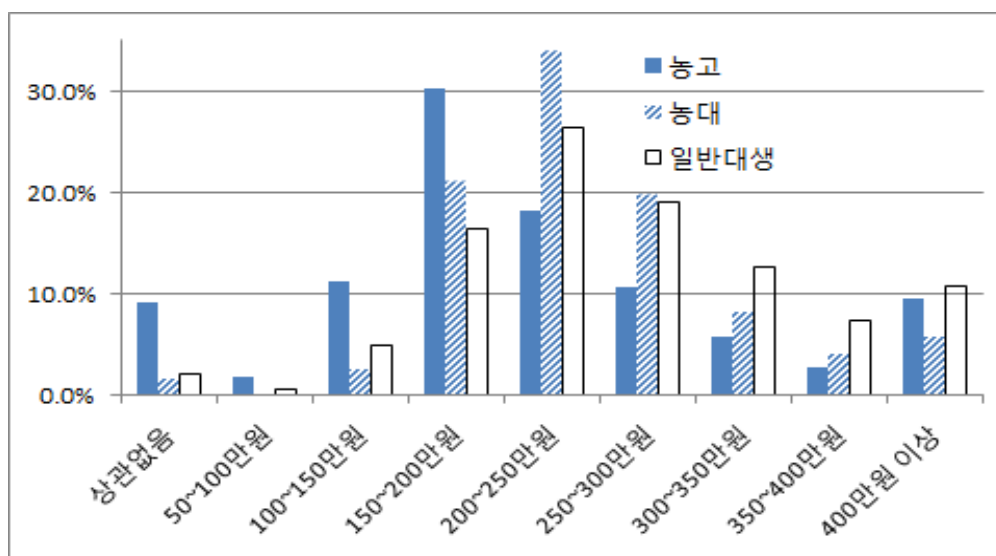


자료: 마상진 외(2016)

4) 청년들 중에 얼마나 농산업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6년에 농업계 학생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일자리 질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기대수준은 농산업체 현장과 차이가 크지 않음.
 - 학생들이 취창업시 기대하는 월 소득 수준은 농고생의 경우 150만~200만 원 수준이 가장 많았고, 농대와 일반대생의 경우 200만~250만 원 수준이 가장 많았음. 이는 농산업체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초임(고졸의 경우 167만 원, 대졸의 경우 190만 원)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임.

학생들의 취·창업 기대소득



자료: 마상진 외(2016)

- 농산업 분야로의 취·창업 관련 장애요인이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근무조건이나 사회적 인식보다는 학생들은 관련 일자리 정보,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의 부족 문제를 꼽고 있음.
 - 학교에서 산학연계 교육을 내실화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산업 현장 정보와 관련 역량을 배양하도록 교원들의 역량을 쏟도록 하고, 더불어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조적 노력이 필요함.

학생들의 농산업 취·창업 장애요인

단위: %

구분	학생		
	농고	농대	일반대
일자리 정보 부족	18.7	22.1	18.4
지식과 기술부족	14.2	13.7	18.4
현장경험 부족	13.1	10.2	15.3
흥미나 자긍심 부족	10.9	14.1	18.4
사회 부정적 이미지	9.2	8.8	11.1
장래 불명확	8.2	15.5	18.4
근무조건 열악	8.3	8.6	0.0
기반 부족	6.7	5.8	0.0
부모 지인의 반대	4.1	1.2	0.0

주: 백분율은 열(세로)별 응답자(복수응답) 기준임.
 자료: 마상진 외(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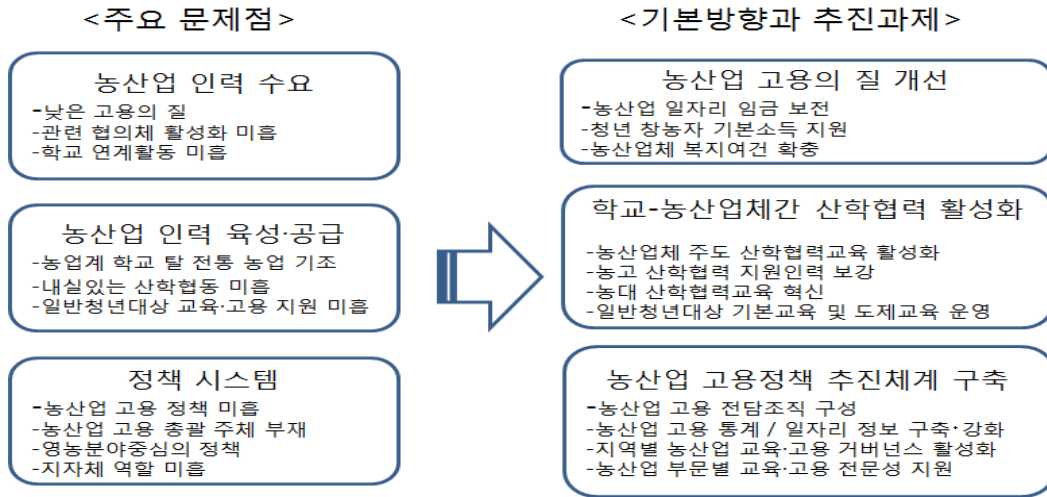
4. 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농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인력 수요, 인력 공급 그리고 정책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 농산업 분야는 고용 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아 청년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음. 정규직 비중이 높지만,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높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일과 휴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근무시간, 전공과의 관련성이 낮고, 본인 학력보다 낮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자기개발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제반 복지여건이 미흡함. 산업체들은 관련 학교와 산학연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의 농산업 고용과 관련한 역할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농산업 인력의 가장 중요한 배출처로 농업계 학교(농고 63개, 농대 30여개를 통해 매년 13,000~14,000명의 학생들이 배출됨)가 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계 학교는 전통적 농업이 위축되면서 전후방 농업 연관 분야로의 교육 분야 확대가 두드러지고, 일부 비농업 분야(레저·관광 등)로도 전환되고 있음.

취·창업 관련한 교육은 농고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 범주를 벗어난 산업체와 적극적인 교육·진로 연계활동은 활발하지 못함. 농대의 취·창업 교육과 산학연계 활동은 매우 제한적임.

- 농산업 분야의 적절한 고용 시스템이 미흡한 편임. 농산업 정책은 대부분 세부 산업 부문별 인프라 중심의 투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 인력 육성·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일부 실행되는 고용 정책의 경우 영농 인력이 주를 이루고 전후방 연관 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내에 농산업 고용 현안 총괄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일자리 현안이 부각될 때만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다보니 정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역시 불분명하며 관련 사업의 관리가 지속적이지 않음.
- 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농산업 고용의 질 개선, 농산업 고용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농산업 고용 시장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어느 산업보다도 비중이 높음. 농산업 고용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청년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규모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지 않은 청년들이 기회가 되면 농산업 분야에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고, 농산업 현장의 우수 사례들은 농산업체, 농산업 교육현장, 농촌 지자체의 적극적 연계 활동을 통해, 농산업 분야도 충분히 성공적 창업자, 취업자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줌. 하지만 범부처 차원의 정책이나 농정 당국의 관련 정책은 아직 미흡하였음. 지금의 청년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농산업 고용 관련 문제점과 추진과제



- 열악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일정부문 임금을 보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세부 농산업 부문별 기구의 노력을 연계시켜야 함.
 - 농산업 일자리의 적절한 임금 수준 보장을 위해 현재 영농분야 경영체에만 적용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사업’과 같은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농산업 분야 전반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방정부의 매칭을 통해 도시 또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차이가 나는 임금 또는 주거·교통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의 심각하게 고령화된 농가 구조의 개선 차원에서, 영농 분야 창업 청년에게는 창업 후 일정기간 동안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2016년 추진하다 중단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모형을 수정·보완하여 확대 추진).
 - 문화, 복지, 보육 등의 여건은 지자체 단위 중간지원기구나 세부 산업별 협회가 개별 업체의 요구를 모아 지역 또는 업종 단위로 공동 대응을 하도록 함. 또한 지역별·산업별 지원기구를 통해 해당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세부 농산업 부분별 주요 민간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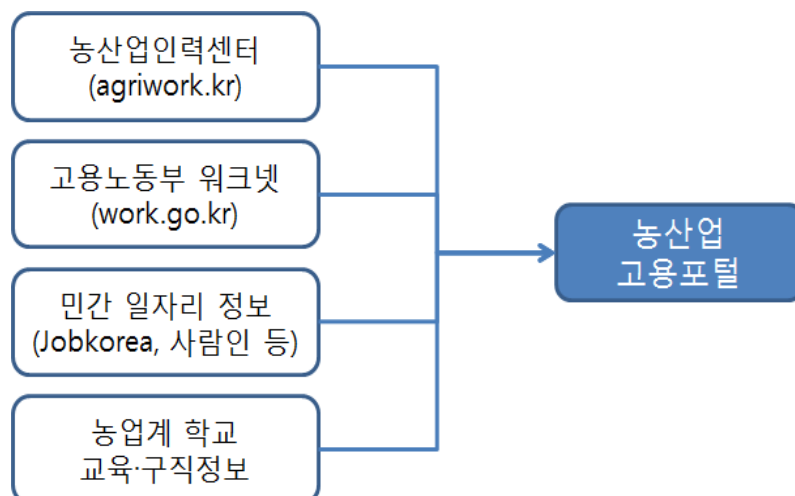
산업 부문	단체명	
농림 생산	농업	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조경	한국실내조경협회,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한국조경사회
	곤충	한국곤충산업협회
	산림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농기계, 농자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업시설협회, 한국농자재산업협회	
농약, 비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종자, 종축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농림 서비스	국민농업포럼	
농림 유통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농수식품무역협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한국농수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농식품유통인포럼	
외식	한국외식산업협회	

- 학교 교육이후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중간 과정에 대한 정책 정교화가 필요함.
 - 농업계 학교는 농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재학 시절부터 학생들과 인턴 형태로 고용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원하는 이론적 내용을 학교에서 교육받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도제식으로 실무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함.
 - 고교 단계 직업 교육생들의 취업을 위해 광역 단위로 하나씩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농산업분야 전담 인력을 배치시키고, 농업계고에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취업전담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해야 함.
 - 이론 중심의 농대교육의 일대 혁신을 위해 농정 당국은 교육부와 연계하여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사)농식품생명과학협회,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산업 포럼 등 범농산업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농학교육혁신추진위원회(안)’를 구성하여 농산업기반 교육이 강화되도록 해야 함.
 - 농산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농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농산업 진로와 관련한 기본교육 패키지를 제공하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40대 이하 청년 귀농자들이 농산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훈련센터를 운영

하여 이곳에서 현직 근로자 재교육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도제훈련을 실시하고, 이후에 관련 업체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재 농촌정책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농기자재정책팀, 종자생명산업과, 친환경축산팀, 식품산업정책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인력관련 업무를 ‘(가칭)농산업인력’에서 담당하도록 함.
 - 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영농 이외 농림 서비스, 투입재, 식품가공, 외식, 농림 유통 등 세부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관련 통계가 생산되도록 ‘농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제정하고, 농산업 고용통계를 생산하고, 농산업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한 통합 정보 플랫폼을 설치·운영해야 함.
 - 세부 농산업 부분별 주요 협회들의 교육·고용 전문성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농산업 관련 주체들 간의 고용 관련 민관 협의기구를 활성화 시켜야 함.

농산업 고용 포털(안)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김종인**

1. 생산조정제의 필요성

- 2016년산 쌀은 수확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단경기(7~9월) 이후 상승세가 전환되었음.
 - 2016년산 쌀 수확기 가격은 전년 수확기 대비 13.9% 하락한 129,711원/80kg을 기록하였음.
 -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은 올해 6월 한 때 12만 원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수급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부터 반등하여 상승세가 지속되었음.
- 2017년산 신곡의 경우에도 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신곡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이후 쌀 가격도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0월 평균 가격은 151,013원/80kg까지 상승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5% 높은 수준임.
- 그러나 2017년산 신곡 가격 상승은 정부의 시장격리 계획 발표에 따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쌀 수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3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을 발표하였음(2017.9.28).
 - 2017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97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으나,

* 본고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이는 예상 신곡 수요량보다는 여전히 20여만 톤 이상 많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등이 없었을 때를 가정하면 쌀 가격은 12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음.¹⁾

- 한편,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4년산 이후 과잉되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계속 실시한 결과, 2017양곡연도말 정부재고는 182만 톤 수준으로 적정 재고량²⁾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양곡 10만 톤당 관리비용은 약 307억 원으로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보관료+금융비용)이 106억 원, 가치하락에 의한 간접비용이 201억 원에 달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시장격리와 같은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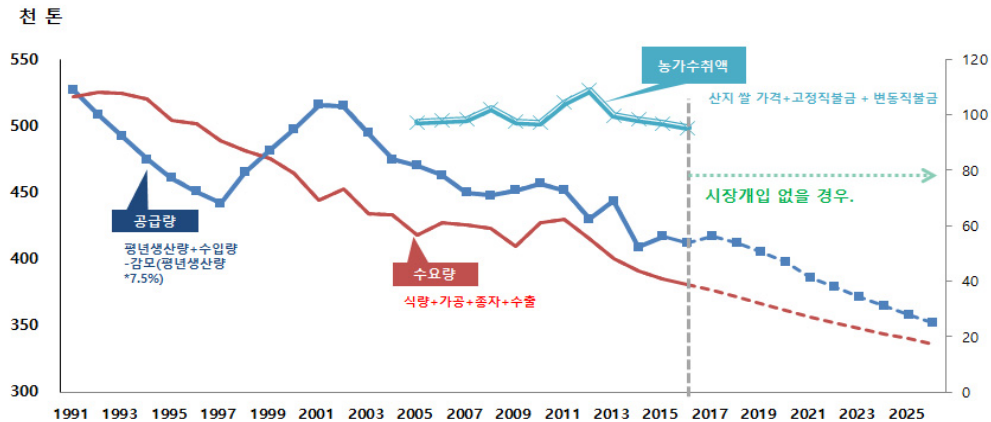
2. 쌀 수급 현황 및 전망

- 1990년대 이후 쌀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초과 공급 상태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초과공급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 동안(2007~2016양곡연도) 연도별 초과 공급물량을 분석한 결과, 당해 생산량 기준 시 연평균 35만 톤이 초과 공급되었으며, 평년단수(작황에 대한 영향 제외)를 적용하면, 연평균 28만 톤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수확기 모형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 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산 수확기 쌀 가격은 120,814원/80kg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농촌경제 제40권 제3호 "수확기 쌀 가격 예측 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 참조).

2) 정부는 공공비축미 재고를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물량은 별도 비축)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각년도 및 농업관측본부

- 쌀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소비가 감소하는 폭이 생산이 감소하는 폭보다 더 커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 최근 10년(2007~2016양곡연도)을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약 2.2% 줄어드는 반면, 쌀 소비량은 연평균 약 2.6%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구조임.³⁾
 - 공급측면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쌀 적정생산 유도 정책 등의 효과로 벼 재배면적의 감소폭은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쌀 단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결과적으로 공급량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음.⁴⁾
 - 소비측면에서는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식량 수요도 감소하고 있음. 주정용 공급량이 최근 증가 추세이나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식용가공용 물량도 정체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3) 1인 가구 및 쌀 대체식품 소비 증가로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1인당 쌀 소비량은 1979양곡연도에 135.6kg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양곡연도에 100kg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6양곡연도에 61.9kg으로 1979양곡연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4) 최근 10개년(2007~2016양곡연도)의 평균단수는 504kg/10a인 반면, 최근 3개년(2014~2016양곡연도)의 평균단수는 523kg/10a으로 쌀 단수가 점차 증대됨.

-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 재고처리로 쌀 재고가 적정수준까지 감축되더라도 시장격리 등의 정부매입으로 재고가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쌀 수요 및 공급 변동추세를 고려할 때, 정부의 특별한 정책(생산 감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 공급과잉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간(2017~2026양곡연도) 평균적으로 약 29만 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3. 과거 유사 제도의 효과 및 한계점

- 재고량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3~2005년 기간 중 휴경 중심의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였는데 이 기간에 총 7만 4천 ha의 벼 재배면적이 감축되었음.
- 다만, 김명환 외(2005)의 연구⁵⁾에서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생산조정제의 실제 감축 효과는 휴경 면적의 49% 수준인 3만 7천 ha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실시된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은 기존의 생산 조정제와 비교했을 때 전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었으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에 따라 정부 재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음.
 - 사업이 도입된 첫해에는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수확기 산지 쌀가격도 전년 대비 20.3%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변동직불금도 발생하지 않았음.
- 반면,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을 통해 전작한 일부 작물들은 제한적이나마 수

5)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김명환·김태곤·김배성·김혜영·사공용

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지 배추와 노지 대파는 통상적인 가격 변동폭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음. 다만, 2010년 태풍 곤파스 등의 영향으로 노지 배추와 노지 대파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이 이듬해인 2011년 생산량 증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 따라서, 노지 배추와 노지 대파의 가격하락 현상이 전적으로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콩의 경우도 가격 하락폭이 컸으나 콩 TRQ계획량을 전년 대비 25.5% 확대하는 등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요인도 컸다고 볼 수 있음.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이 쌀 이외의 주요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작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수급조절 목적의 생산조정제는 폐지하였으나 환경보전적 성격의 휴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1974년 이후 자급률이 낮은 맥류, 대두,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전작보상형 생산조정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단가의 기준을 주식용 쌀 소득과의 소득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음.
 - 미국은 WTO 출범 이후 의무적인 생산조정제는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자율적인 휴경을 해도 정부 보조금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환경보전적 성격의 휴경은 계속 지원하고 있음.
 - EU 역시 2013년 이후 의무적인 휴경은 폐지하였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적 목적의 휴경을 의무화하고, 경관작물 재배시 추가적인 직불금(Green payment)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4. 생산조정제 추진 방식

-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효과 고려 시 전작보상형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 전작 작물의 급격한 공급 증가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풋거름(녹비)작물 재배시 지력 증진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

하면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의 휴경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자급률 제고 효과 및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시 조사료와 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포도·블루베리와 같이 FTA폐업지원제의 대상이 되었거나, 배추, 무, 고추, 양파, 대파와 같이 가격변동성이 크면서 산지폐기 등의 수급조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인삼은 2016년 기준 자급률이 123%이고, 수출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재고물량이 과다한 수준이어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작물 재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대체작물들의 확대 면적 한계치를 설정하고, 이 한도내에서 재배면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원단가는 쌀 소득과의 소득격차, 논 평균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타작물로의 전작을 유인하되, 일률적인 단가 방식이 아닌 차등단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정 작물로의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작물에 대해 차등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소득자료의 부재 등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주요 전작작물인 조사료와 콩은 소득 차이 등에 기반하여 단가를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생산조정 필요 면적은 구조적 공급과잉 규모인 약 6만 ha에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최소한 8만 ha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쌀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생산과잉 규모에 해당하는 약 6만 ha가 감축되어야 하지만 생산조정제 실행시 생산조정면적과 자연감소분이 중복되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면적 전환이 필요함.
 - 연간 자연감소분은 약 1만 7천 ha 수준⁶⁾이나 공용시설·주택 등의 건립과

6) 벼 재배면적 함수($Paddy_t = 0.9 \times Paddy_{t-1} + 28.6 \times Sd9702 + 3.9$ ($R^2 = 0.99$, 기간: 1990년 - 2016년) 및 연평균 감소를 적용한 결과 벼 재배면적은 평균적으로 약 1만 7천 ha가 자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농지전용 규모가 연평균 6천 ha 규모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최대 연평균 1만 1천 ha를 추가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생산조정제를 향후 2년간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자연감소분과의 중복 현상을 고려하면 구조적 공급과잉 면적인 6만 ha에 더해 최대 2만 2천 ha 규모의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연감소분과의 중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 참여 농지가 우량농지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환 대상 타작물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타작물로의 원활한 전작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등의 경영안정수단을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함.
- 각 지자체는 지역의 작부체계 조사를 바탕으로 전략·성장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지자체의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이나 원예산업종합계획 등에 명기하여 지역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타작물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 타작물 전환이 촉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개별 농가보다는 들녘경영체나 밭작물공동경영체 등과 같이 집단화, 단지화된 공동경영체 위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전작 작물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임.
-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타작물 전환의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정부의 ‘밭농업 기계화 추진 계획(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5. 생산조정제에 따른 영향 추정

- 정부의 계획대로 2018년에 5만 ha를 생산조정할 경우 베이스라인(생산조정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4.5% 줄어 수확기 가격이 2.8% 상승하고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이 최대 2,010억 원 감소하여 투입된 정부 재정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에 추가적으로 5만 ha를 더 감축하면 베이스라인 대비 생산량이 9.2% 감소하여 수확기 가격이 10.0% 상승하고,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이 5,754억 원 감소하여 변동직불금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에 추가적으로 3만 ha를 더 감축해도 수확기 가격이 베이스라인 대비 8.0% 상승하여 변동직불금이 4,601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쌀직불금을 포함한 쌀농가의 소득은 2018년 이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산 쌀농가 소득은 최대 10a당 829만 원으로 생산조정제 실시 이전인 2017년산 소득(704만 원/10a)보다 18%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향후 운영 방향

- 생산조정제는 초과 공급 상태인 쌀 수급 상황을 개선시켜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시점까지로 시행 기간을 한정하되, 정부는 후속 대책을 통해 타작물로 전작한 농가들이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타작물 재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쌀 이외 작물들, 특히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영농 편의성을 개선하고, 이들 작물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벼 위주의 논 활용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

- 타작물로의 전작 촉진과 회귀방지를 위해 참여농가가 장기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작작물 육성을 위한 전작보상제 등과 같은 후속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작보상제는 생산조정제와 유사한 정책이나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대체품목의 여건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㉔ 01-2017-03

농업농촌경제동향 2017 가을호 | 제20권 제3호 (통권77호)

등 록

인 쇄 2017. 11

발 행 2017. 11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283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